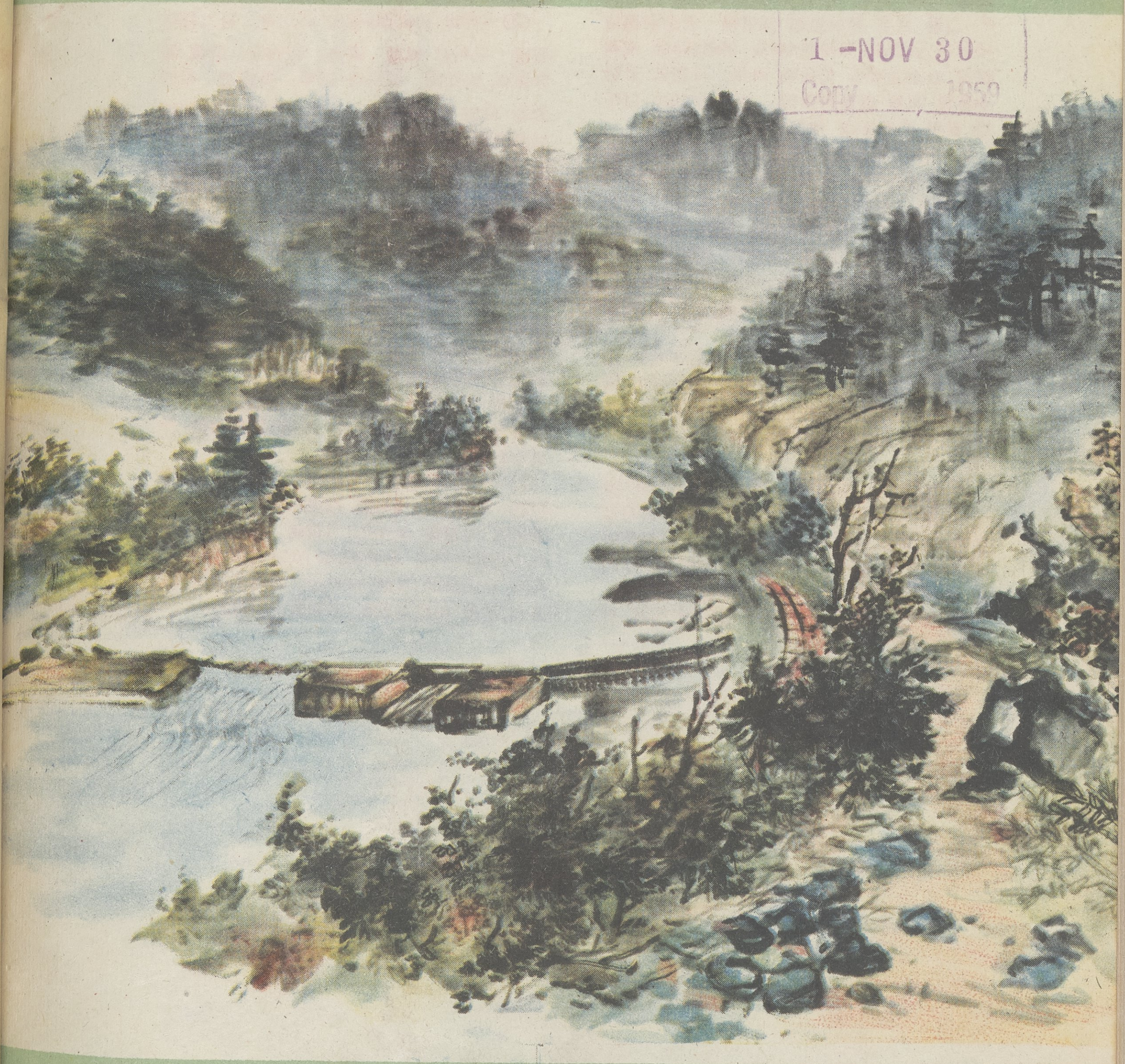
청년생활



6
1959

청소년들 속에서 《록화 근위대》 활동을 조직 전개할 데 대하여

최근 민청 중앙 상무 위원회는 산파 들은 물론 특히 도시 록화를 계획적으로 조직하며 그를 보호 육성함에 있어서 청소년들의 역할을 높이기 위하여《록화 근위대》를 조직하고 청소년들의 힘으로 록화 사업을 담당 수행할 것을 결정하였다. 결정서에는 다음과 같이 지적되어 있다.

1. 각도 (평양시, 개성시) 시(구역), 군 민청 위원회들은 공장, 기업소, 농업 협동 조합, 학교, 사무 기관, 기타 모든 초급 민청 단체와 소년단 대들에《청년 록화 근위대》, 《소년 록화 근위대》를 조직할 것이다.

《록화 근위대》에는 민청원들과 소년단원들이 망라되여《록화 근위대》의 임무를 충실히 실행하도록 지도할 것이다.

2. 각도(평양시, 개성시), 시(구역), 군 민청 위원회들은 관계 기관과 토의하에 매개《록화 근위대》들에게 담당 구역을 설정해 주며 그의 활동을 다음과 같이 지도할 것이다.

(1) 《록화 근위대》는 청소년들에게는 물론 전체 인민들 속에서 록화 사업이 가지는 정치, 경제, 문화적 의의를 해설 선전하며 록화의 조성 및 보호 관리 방법에 대한 기술 지식을 각종 방법으로 보급할 것이다.

그리하여 모든 사람들이 나무와 꽃을 사랑하며 자기의 것처럼 보호 육성하는 사업에 자각적으로 참가하도록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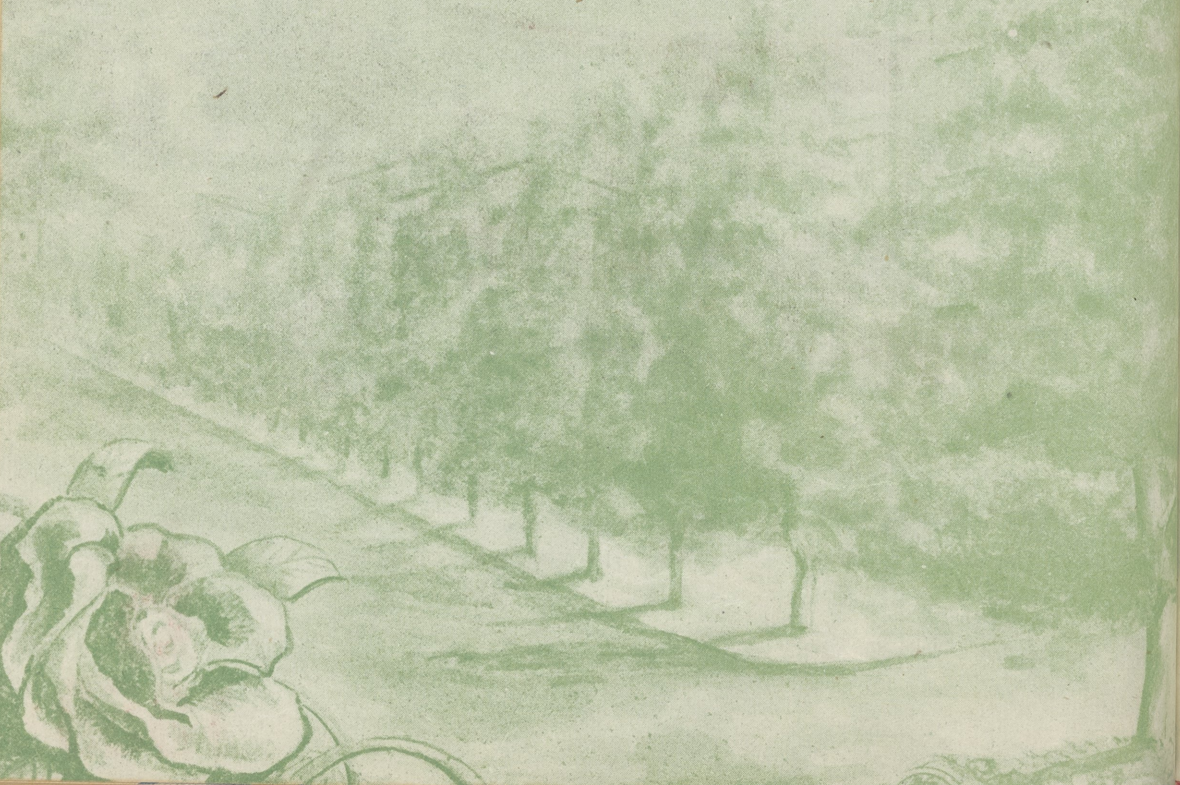
(2) 《록화 근위대》들로 하여금 자기들의 담당 구역의 일체 공원, 유원지, 가로 및 정원의 화초밭, 록지의 나무, 꽃들과 시설물을 자연 재해(한해, 수해, 병충해)로부터 보호하며 나무와 꽃을 꺾으며 록지를 짓밟는 현상들을 반대하여 투쟁하도록 할 것이다.

《록화 근위대》는 계획적으로 제초, 시비, 전정, 병해충 구제, 관수 사업을 진행할 것이다.

(3) 《록화 근위대》는 자기 담당 구역에 대한 록화 전망 계획을 수립하고 근로자들과 아동들을 위한 공원, 유원지, 화초밭을 담당 건설하도록 할 것이다.

또한 유치원, 탁아소들에 정원들을 설치하고 아름답게 록화하며 모든 도로들에 가로수를 심도록 할 것이다.

3. 각 도(평양시, 개성시), 시(구역), 군 민청 위원회는 《록화 근위대》의 정상적인 활동을 보장할 것이며 그들의 역할을 높이기 위하여《록화 근위대》들 호상간에 경쟁을 조직 지도하며 경험 교환회, 과학자들의 방조 사업을 정상적으로 조직할 것이다.



조선 민주 청년 동맹
중앙 위원회 잡지



청년생활

차 례

앞표지 — 보천보 진군시 항일 빨치산들이 도강한 구시물동의 풍경 …… 리길남 그림



6
(117)
1959

편집 위원 리 홍종 (주필)
전 성근 박 춘실 지 장렬
김 상민 송 선경
발행소 민 청 출 판 사 1959년 6월 1일 인쇄
인쇄소 로동 신문 출판 인쇄소 1959년 6월 10일 발행
(값 30전, ㄱ—30351) 105,000부 발행

미군은 당장 물러 가라!

기억에 생생한 9년전 6.25에 미제와 리 승만 도배는 우리 조국 강토에서 침략 전쟁의 불을 질렀다. 미제는 이 침략 전쟁에서 조선을 강점하여 자기의 영원한 식민지로, 중국과 쏘련을 반대하는 새 전쟁 도발의 발판으로 만들 것을 흉책하였다. 미제는 자기 나라의 주력 부대와 추종 국가의 고용병 그리고 막대한 무력을 투입하여 전고 미문의 야수적 전쟁 방법으로 공화국 북반부를 단숨에 삼켜 보려고 발악하였다. 그러나 세계의 《최강》을 자랑하던 미제 무력 침공자들은 39만의 미군을 포함한 109만 명의 살상자들과 포로를 내고 력사상 처음 조선 인민들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 조선 전쟁은 민족적 독립과 자유를 위하여 궐기한 인민들을 어떠한 힘으로도 굴복시킬 수 없다는 것을, 그리고 타국 인민들을 침략하는 제국주의자들은 기필코 멸망하고야 만다는 것을, 미제는 완전히 《종이범》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조선 전쟁은 조선에서 평화를 공고히 하며 조선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다. 그러나 전쟁의 참패에서 교훈을 찾지 않는 미제 침략자들의 남조선 강점과 계속되는 전쟁 도발 책동으로 말미암아 조국의 통일은 아직 실현되지 못하였다. 남북의 분렬은 우리 나라의 정치, 경제, 문화 발전에 막대한 장애를 주고 있으며 인민들의 생활에도 헤아릴 수 없는 불행을 주고 있다.

오늘 공화국 북반부의 인민들은 전쟁의 상처를 완전히 가시고 사회주의 높은 봉우리를 향하여 《천리마》의 기세로 내달리고 있다. 작년에 공업 생산은 해방 전의 최고 수준인 1944년의 4.3배에 달하였으며 일부 특수한 중형 기계를 제외한 생산 수단 생산을 자급 자족하여 민족 경제의 자립성을 반석같이 축성하였다. 석탄, 선철, 전력 등 중요 공업 제품의 인구 1인당 생산에서 금년에 공화국은 일본을 릉가하게 되였다.

사회주의 협동화가 완성된 우리 나라 농촌에서는 앞으로 1~2년 내에 전기화가, 2~3년 내에 수리화가 완성되며 4~5년 내에 기계화가 완성된다.

재'더미를 털고 일어선 공화국은 오늘 동방 일각에 우뚝 솟은 발전된 공업—농업 국가로 전변되였다.

그러나 미국 승냥이들이 둥지를 틀고 있는 남조선은 미제의 식민지 상품 시장으로, 대륙 침략의 군사 전략 기지로 전락되고 있다. 이미 1956년에 남조선 공업은 일제 강점 시기의 겨우 57%에 불과하였으며 해방전에 북조선의 2배 이상을 생산하던 알곡은 1958년에 일제 강점 시기의 32%에 해당하는 950여만 석으로 감소되였다. 직업을 잃고 거리를 방황하는 660만의 실업 및 반실업군, 300만 이상의 절량 농민들, 수십만의 고아들, 생계를 이으려고 깡통을 주으려다가 도적으로 날조되여 미군의 과녁으로 쓰러져가는 남조선 형제들과 청소년들의 아우성 소리가 우리의 귀'전을 쟁쟁히 울리고 있다. 미제와 리 승만 도배는 불행한 처지에 빠진 남조선 동포들을 이국 땅에 《이민》의 명목으로 팔아 넘기려고 까지 하고 있다. 이 모든 비극은 미제와 리 승만 역도들의 파쑈 테로 통치가 빚어낸 결과이며 미군의 남조선 강점 때문이다.

공화국 정부는 정전 이후에도 계속 조국을 평화적으로 통일하며 남조선 형제를 구원하기 위하여 시종 일관 노력하였다. 공화국 정부는 조선에서의 정전을 공고한 평화에로 전환시키며 모든 외국 군대를 조선에서 철거시키고 민주주의에 기초한 총선거를 실시하며 외국의 어떠한 간섭도 없이 조선 문제는 조선 사람 자신의 손으로 해결할 조선 인민의 확고한 립장을 천명하고 그 실현을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하였다. 공화국 정부는 남북 경제 문화 교류의 실현, 남북 인민들 간의 접촉, 남북을 통한 정당들의 자유 활동의 보장 등을 수차 남조선 당국에 제의하였다.

공화국 정부는 실업자들과 절량 농민들을 구제하기 위하여 식량과 필수품을 보내 줄 것을 제의하였으며 남조선 거리를 방황하고 있는 고아들을 받아 들여 양육할 데 대한 육친적 배려도 돌리였다. 학비난에 신음하며 자기의 피를 팔아 공부하다 쓰러져 가는 남조선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제공하자고 제의하였다. 그러나 미제와 리 승만 역도는 조선 인민의 이와 같은 모든 노력에 대하여 도발 행동으로 대답하고 있다.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달성하고 전체 조선 인민과 청년들이 행복하기 위하여서는 우리 조국을 남북으로 갈라 놓고 있는 미 제국주의자들을 철거시켜야 한다.

6월 6일 조국 통일 민주주의 전선 중앙 위원회는 금년 6.25를 《남조선으로 부터 미군 철거를 위한 투쟁의 날》로 맞이할 것을 전국 동포들에게 호소하였다.

타국 령토 내에 있는 모든 외국 군대의 철거를 요구하는 시대의 목소리는 세계 방방곡곡에서 힘차게 울려 퍼지고 있다. 6.25를 미군 철거를 위해 투쟁하는 조선 근로자들 및 인민들과의 국제적 련대성의 날로 하여 투쟁할 것을 전 세계 근로자들에게 호소한 세계 직련 집행 위원회 19차 회의 결정은 모든 평화 애호 인민들과 로동자들의 열렬한 호응을 받고 있다.

지금 쏘련을 선두로 한 형제 국가 인민들, 각국의 진보적 인사들이 남조선으로부터의 미군 철거를 요구하며 조선 인민들의 평화적 조국 통일 위업을 적극 지지 성원하고 있다.

김 일성 동지는 일찌기 조국의 평화적 통일 달성은 력사 발전 행정의 필연적 결과로 된다고 강조하시면서 미군이 부득불 철거하게 될 세 가지 조건을 지적하시였다. 즉 남조선 인민 대중의 혁명 력량의 장성, 공화국 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 력량의 공고 발전, 쏘련을 선두로 한 사회주의 진영과 평화 애호 력량의 가일층 장성 강화를 명시하였다. 오늘 세계의 대세는 우리 혁명 위업에 결정적으로 유리하게 전변되고 있다.

이미 공화국 북반부에서 중국 인민 지원군이 완전히 철거한지 벌써 1년이 가까와 오고 있다. 미군이 남조선에 남아 있을 어떤 구실도 있을 수 없다. 미제 침략군은 남조선에서 당장 물러 가야 한다. 만일 미 제국주의자들이 조선 전쟁의 교훈을 망각하고 사회주의 및 평화 력량의 장성 강화와 제국주의의 몰락으로 특징지어 지는 현실을 무시하고 무력 행사를 감행한다면 그것은 천배, 만배의 더 무서운 참패로 끝나리라는 것을 명심하여야 한다.

전국 청년 학생들이여! 조선은 하나이며 조선의 주인은 조선 인민이다. 우리 민족의 분렬과 멸망을 강요하는 미제 침략군의 철거를 위한 거족적 투쟁에 한사람 같이 나서자!

그리하여 미 제국주의자들이 더는 남조선에 들어 백여 있지 못하게 하자! 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 건설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의 담보이며 미제 침략자들의 도발 음모를 분쇄하는 위력한 력량이다.

전체 청년들은 김 일성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우리 당 중앙 위원회 주위에 더욱 튼튼히 단결하여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천리마의 진군 속도를 더욱 높이라!



보천보 전투

오 백 룡

우리 항일 유격대가 조국 땅에 진출하기 위하여 장백현으로 나온 것은 1936년 가을이였다.

그해 초에 녕안현 남호두에서는 력사적인 당, 군정 간부 회의가 열리였다. 이 회의에서 김 일성 원수는 반일 통일 전선 운동을 더욱 발전시키며 당 창건을 준비하며 국내 혁명 운동에 대한 지도를 강화할 데 대하여서와 조선 인민 혁명군을 압록강과 두만강 국경 일대에 진출시킬 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였다.

김 일성 원수는 이 회의 후 조선 인민 혁명군 제 6사 부대들을 친솔하시고 무송현을 거쳐 조선이 가까운 장백 일대에 진출하여 점차 무장 투쟁을 확대하여 갔다.

이에 당황한 일제 침략자들은 각처의 병력을 끌어 모아 가지고 유격대가 행군하는 앞길을 막으려고 발악했다. 그러나 원쑤들은 우리가 장백현에 진출한 가을 한두 달 동안에만 하여도 대덕수, 소덕수, 반절구, 2도강, 20도구 등 이르는 곳마다에서 섬멸적인 타격을 받았고 그해 겨울에도 회쌰즈거우, 문암동, 홍두산, 도천리, 리명수 전투 등 여러 차례의 전투에서 참패를 당하였다. 그리하여 놈들의 《동기 토벌》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다.

이와 같이 우리 부대는 적과의 무장 투쟁을 강화하는 한편 장백현과 그 대안 일대에 당 단체들과 조국 광복회를 조직 확대하면서 광범한 반일 력량을 결속하여 튼튼한 혁명적 군중 지반을 닦아 놓았으며 국내 혁명 운동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였다.

이 시기에 일제 침략자들은 중국 본토와 쏘련의 극동을 침공하며 나아가서는 전 아세아를 강점할 흉계를 꾸미면서 그의 《후방》인 조선에 대하여 말할 수 없는 략탈과 탄압을 감행하였다.

놈들은 《내선 일체》니 조선 사람과 일본 사람은 《동조 동근》이라느니 하고 떠벌리면서 국내의 애국자들을 모조리 검거 투옥하기 시작하였으며 조선의 모든 자원을 깡그리 긁어 가고 조선 인민을 중세기적 암흑 속에 허덕이게 하였다.

바로 이러한 때에 김 일성 원수께서는 우리 유격대를 거느리시고 국경 대안에 진출하여 출몰무상한 령활한 전술로 원쑤들에게 련속적인 타격을 주었다. 이 감격에 찬 기쁜 소식은 전체 조선 인민의 가슴을 새로운 희망과 흥분으로 설레이게 하였으며 항일 유격대가 하루속히 국내에로 진격하여 나오기를 갈망하게 했다. 우리들은 장백에 나온 후 조국 산천의 숨'결을 몸 가까이에 느끼며 그 품에 안겨 볼 날을 손곱아 기다렸다.

김 일성 원수는 국내 진공을 앞두고 권 영벽, 리 제순 동지들을 파견하여 박 달, 박 금철 동지들을 비롯한 국내의 견실한 공산주의자들과 련계를 맺고 1936년 12월에는 박 달 동지를 지양개'골 삼계에서 직접 만나 임무를 주시였다. 원수께서는 그에게 친히 조선 혁명의 전망 문제를 해설하여 주시였으며 당면한 투쟁 방향을 명확히 제시하시였다.

그 후 김 일성 원수는 조선 인민 혁명군의 국내 진출에 대한 작전 계획을 더욱 구체적으로 작성하시였다.

1937년 5월 25일 경 그이께서는 회쌰즈거우 밀영 가까운 20도구 산 중에서 박 달, 박 금철 동지들을 접견하시였다. 이때 원수께서는 그들에게 오래지 않아 중일 전쟁이 일어나리라는 것과 이 전쟁이 일어난 후 국내 공산주의자들이 수행해야 할 투쟁 과업을 명시하시였다. 그리고 보천보를 중심으로 한 부근 일대의 군사 략도를 작성하여 보내는 동시에 적의 동태와 력량을 탐지하여 보고할 것을 지시하시였다. 두 동지는 국내에 돌아간 후 인차 이에 대한 상세한 보고를 하였다.

김 일성 원수는 부대 행군로의 거리 시간, 습격 대상과 습격 방법, 전투대의 편성, 정찰 조직, 군중들에 대한 정치 공작 등 제반 문제에 대하여 주밀한 계획을 수립하시였다.

나는 그 때 전령병으로 있은 동무에게서 원수께저 계시는 방 안에서는 며칠 밤을 계속하여 동녘이 밝아 올 때까지 등'불이 꺼지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드디여 력사적인 진군의 날 1937년 6월 2일은 왔다. 7련대와 8련대, 경위 중대에서 선발된 150여 명의 동지들로 구성된 원정대는 김 일성 원수의 령솔하에 회쌰즈거우 밀영을 떠나 진군을 개시하였다.

우리는 이날 예정된 시간에 23도구 어구 부락에 도착했다. 마을 사람들은 우리를 지성껏 환영했다. 여기서 우리는 군중 공작을 진행하면서 하루 밤 휴식하였다.

이튿날 아침 구시'골 둔덕에 오른 우리는 천년 만년을 두고 흘러 내리는 압록강의 푸른 물'결이며 허리에 흰 구름을 감고 아아히 솟은 조국 땅 산 봉우리들을 바라 보았다. 얼마나 보고 싶던 산과 물인가, 눈 앞에 바라 보이는 조국 땅에서는 이 시각에도 강도 왜놈들이 동포들의 고혈을 빨아내며 온갖 만행을 감행하고 있으리라는 것을 생각하니 두 주먹이 떨리며 치솟는 격분을 참을 수 없었다.

해가 저물자 부대는 야음을 리용하여 다시 진군을 개시하였다. 대오는 흥분과 긴장 속에서 묵묵히 나아갔다. 구우수강과 압록강이 합치는 물'동 부근 도하 지점에 이르니 벌써 류벌부 김 형근 동무와 김 치근 동무가 떼 다리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때는 얼마전에 비가 많이 내렸기 때문에 보통 때보다 강물이 엄청나게 불어 나고 물'살이 셌다. 하지만 우리의 진군을 목 마르게 기다린 이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강물에 온 몸을 적시면서 떼 한쪽 끝을 기어이 강 건너편에 이어 놓았다. 이날 이미 보천보를 정찰한 조국 광복회원 천 봉순 동무는 보천보까지의 길 안내를 섰다. 이리하여 우리는 저마다 힘 자라는 대로 유격대를 도와 나선 동포들의 도움을 받으며 드디여 강을 건넜다. 압록강을 도하한 후 김 일성 원수는 떼를 지키며 부대의 퇴로를 보장하기 위하여 도하 지점 부근에 한 개 구분대를 매복시켰다.

전 대오가 곤장덕에 올랐을 때는 벌써 날이 밝아 올 무렵이였다. 원수께서는 대원들에게 휴식 명령을 내리셨다. 모두들 들어 누웠으나 누구 하나 피로를 느끼지 않았고 종시 잠이 오지 않았다. 어느덧 동쪽 하늘이 훤히 밝았다.

6월 4일 조국 땅에서 맞는 첫 아침이다. 우리는 황홀한 눈으로 주위를 바라 보았다. 천리 수해 속에 거연히 솟은 백두산은 아침 해'살을 떠 이고 더욱 눈부시게 빛났다.

《웅장하구나! 얼마나 아름다운가!》

모두 감격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조국 땅의 큰 품 속에 안긴 벅찬 심정을 이기지 못하여 어떤 동무들은 나무를 그러 안고 돌아 갔고 어떤 동무들은 풀 우에서 막 딩굴었다. 그리고 흙을 움켜 쥐여 코 앞에 갖다 대기도 하고 뺨에 비비기도 했다.

이날 낮 김 일성 원수는 대원들에게는 휴식을 명령하였으나 자신은 조금도 쉬지 않고 이제 시작할 전투를 더욱 빈틈 없이 준비하시기에 여념이 없으시였다.

6월 4일은 보천보 장날이고 또 단오 명절 전날이여서 한낮이 되면서부터 거리는 사방에서 모여든 장'군들로 들썩거렸다. 김 일성 원수는 이 복잡한 틈을 리용하여 적정에 변동이 없는가를 더 정확히 포착하기 위하여 김 학실, 마 동희 동무를 비롯한 정찰조를 거리에 파견하시였다. 그들은 계란 장사 혹은 행인으로 가장하고 보천보 거리를 왕래하면서 적들의 동태를 탐지했다.

원수께서는 친히 망원경으로 보천보 시내에 도사리고 앉은 적 기관들을 하나하나 자세히 살피시였다. 오후에 곤장덕 수림 속에서는 지휘 성원들의 모임이 있었다. 김 일성 원수는 이 모임에서 각 구분대의 전투 임무를 다음과 같이 하달하시였다.

—리 동학 동지가 인솔한 구분대는 산림 보호구, 면 사무소, 농사 시험장, 우편국을 습격할 것,

—오 중흡 동지가 인솔한 구분대는 기관총한 문을 가지고 혜산으로 통하는 도로와 전화선을 차단하고 그 방향으로부터 오는 적의 증원 부대를 소멸할 것,

—오 백룡 동지가 인솔한 구분대는 기관총두 문을 가지고 경찰관 주재소를 습격하는 동시에 무산 방향으로 통하는 도로를 차단할 것,

—김 주현 동지가 인솔한 구분대는 시내 각처에 삐라와 격문을 살포하며 주민들에게 선전 해설 공작을 하는 동시에 로획한 적의 군수 물자를 운반할 것,

—지휘처는 가림천변 황철나무 밑으로 정하며 공격 개시 시간은 밤 열시이다.

전투 임무가 전체 대원들에게 알려지자 모두 사기 충천하여 원쑤 격멸의 결의를 더욱

굳게 다지면서 시간이 되기를 기다렸다. 드디여 해가 서산으로 기울어졌다.

이윽고 김 일성 원수의 출발 명령이 내렸다. 우리는 척후대를 앞세우고 일렬 종대로 곤장덕을 내려 갔다. 대렬은 단숨에 가림천 강변에 당도했다. 보천보로 넘나드는 가림천변에는 물 방아'간이 있었다. 우리는 그곳을 건너 가림천 물'소리를 리용하여 은밀 신속하게 각각 지정된 목표에로 접근했다.

나는 기관총을 으스러지게 틀어 잡고 거리를 내려다 보며 적 경찰관 주재소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다가 갔다. 뒤'창문에 붙어 서서 안의 동정을 살펴 보니 때마침 경관 두 놈이 죄 없는 농민 두 사람을 심문하는 중이였다. 한 놈은 몽둥이를 쥐고 옆에 섰고 다른 놈은 이 쪽에 등을 대고 거만하게 앉아 있었다. 나는 참을 수 없는 분통이 치밀어 올랐다.

바로 이때에 암흑의 밤을 깨뜨리는 총소리가 보천보의 거리를 뒤흔들었다.

나는 원쑤의 가슴팍을 겨누고 있던 기관총의 방아쇠를 당기였다. 한 놈이 비명을 지르며 쓰러지고 남포등이 깨여졌다. 그러자 다음 놈이 뛰려고 했다. 그 순간 나는 기관총을 무릎 우에 놓고 사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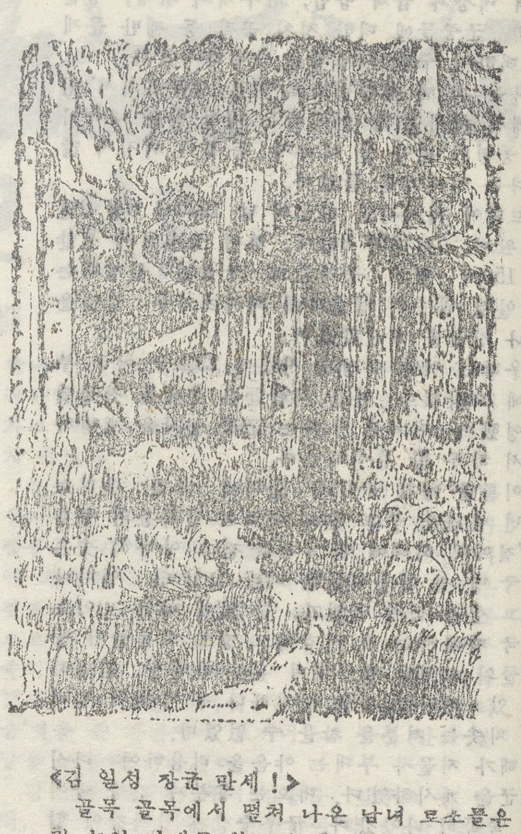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 돌격하여 나갔다. 칼을 얻어 맞은 경관놈은 대항할 생각도 못하고 뒤지우리 속에 들어 박혀 벌벌 떨고 있었다. 우리는 주재소에 있는 적들을 통쾌하게 소멸하고 경기 (《국방 부인회 기증》이라고 새겨 있었다), 보총, 권총 등 여러 정의 무기와 많은 탄약을 로획하였다.

때를 같이하여 면 사무소, 산림 보호구, 농사 시험장, 우편국 부근에서도 콩볶는듯한 총성이 일어 났다. 인민들의 피땀을 빨아 먹던 일제 기관들에서 타오르는 불'길은 하늘을 찔렀다.

이날 밤 산림 보호구 주임(일본놈)의 《영전》을 축하하느라고 시내에 있던 원쑤놈들 중 《유력자》는 죄다 한곳에 모여 주연을 벌려 놓고 놀다가 무리 죽음을 당하였다.

보천보의 거리를 뒤흔들며 울려 퍼진 항일 유격대의 총소리는 인민들을 새로운 투쟁에로 불러 일으켰다. 거리는 침묵을 깨뜨리고 일어났으며 혁명의 불'길이 활활 타오르는 보천보는 때 아닌 낮을 이루었다.

《조선 독립 만세! 조선 혁명 만세!》,



《김 일성 장군 만세!》

골목 골목에서 떨쳐 나온 남녀 로소들은 소리 높이 만세를 부르며 유격대원들을 그러 안고 눈물을 흘리였다.

선전 공작대원들의 눈부신 활동으로 삽시간에 온 거리에는 《조국 광복회 10대 강령》, 《포고문》, 《조선 인민에게 격함!》 등의 삐라와 격문이 도처에 나붙었다.

《… 하루 속히 강도 일제 통치를 전복하고 진정한 조선 인민의 정부를 수립하는 데 매진하라!》 포고문의 절절한 호소는 인민들에게 끓어 넘치는 애국심과 적개심을 불러 일으켰다. 이날밤 선전 공작대원들은 높은 곳에는 목말을 타고 올라 서면서 전보'대란 전보'대는 모조리, 벽, 나무, 울타리, 문짝 할 것 없이 사처에 삐라를 붙이였다.

《김 일성 장군이 오셨다! 우리 군대가 왔다!》고 하며 인민들은 앞을 다투어 주재소 앞 거리로 밀려 나왔다.

김 일성 원수께서는 환호하는 군중들에게 뜨거운 답례를 보내시면서 거리를 나와 그들에게 일제 침략자들의 흉악 무도한 만행을 폭로 규탄하고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위하여 일체 반일 애국 력량은 굳게 단결하여 원수를

항일 빨치산 참가자들의 회상기 중에서

반대해 싸울 것을 호소하는 열화 같은 연설을 하시였다.

김 일성 원수의 연설은 군중들의 가슴을 한없이 격동시켰으며 그들에게 조국의 자유와 해방에 대한 굳은 신념을 북돋아 주었다. 그렇게 길이 흠모하고 존경해 온 민족의 영웅이시며 수령이신 원수의 영명한 모습을 눈 앞에 바라보는 인민들은 다함 없는 기쁨과 감격 속에 잠기였다. 여기 저기서 감격적인 상봉이 벌어졌다.

거리에는 환희와 희망으로 들끓었다.

한참 후에 부대의 철수를 알리는 나팔소리가 울렸다. 석별의 정을 금치 못한 인민들은 저마다 로획 물자를 지고 우리를 따라 나섰다.

《조국이여, 보천보여, 잘 있으라! 이제 그대를 영원히 해방하는 날이 반드시 오리라!》 유유히 개선의 길에 오른 대원들은 저마다 결의를 다지였다.

그리고 모두들 정든 땅을 잊지 못해 흙을 한 줌씩 배낭 속에 깊이 간직했다.

대오는 다시 압록강변에 왔다. 떼'목은 벌써 준비되여 있었다. 조국으로 들어올 때에 우리를 건너 준 그 동무들이 우리의 철수를 다시금 도와 주기 위하여 그때까지 대기하고 있었던 것이다.

김 일성 원수께서는 어둠 속에서 전체 대원들이 강을 건너는 것을 한 사람씩 보살피신 다음 제일 마지막에 강을 건느셨다. 그이는 항상 이처럼 인자한 어버이의 심정으로 부하들을 아끼고 사랑하시였다.

몇 시간 후에 보천보의 소문을 들은 일제 군경놈은 《긴급 회의》를 열고 덤벼쳤다. 놈들은 오가와 경부가 인솔한 경찰 중대를 보천보에 급히 파하는 한편 압록강 상류인 농산곡 혜산 방면에는 히로바시, 이마무라 경부보들이 인솔한 경찰 중대들을 출동시켰다. 그리고 혜산에 있는 구리다 대위 수비대, 기타 《토벌대》들과 위만군 부대들을 총동원하여 가림리 쪽으로 내몰았다. 보천보 전투의 소식을 듣고 대경 실색한 《총독부》에서는 군부와 경찰 책임자들을 불러 놓고 비상 대책을 세우느라고 혈안이 되여 돌아쳤다.

6월 5일 아침 우리를 추격하여 제일 먼저 강을 건너 온 놈들은 오가와 경찰 중대였다. 이때 김 일성 원수께서는 로획 물자를 지고 우리를 따라 온 약 200여 명의 인민들을 집으로 돌려 보내기로 하셨다. 그러나 이미 온 길로는 적들이 추격하여 오고 있었으므로 인민들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다른 방향의 오솔'길을 택하여 돌아 가도록 권고하시였다.

원수께서는 돌아 가기를 서운해 하는 인민들과의 작별에 앞서 다시금 그들 앞에서 연설하시였다. 이때 그이께서는 비록 오늘은 우리가 철수하지만 우리의 다시 만날 날은 머지 않았으니 집에 돌아 가서도 앞날의 승리를 확신하고 일제를 반대하는 투쟁에서 끝까지 용감할 것을 강조하시였다. 그리고 그들이 이처럼 항일 유격대원들을 도와준 데 대하여 거듭 사의를 표하시고 매 사람들에게 적지 않은 현금까지 나누어 주셨다.

강을 건너 온 놈들은 우리를 추격하자니 겁이 나고, 돌아 가자니 상관의 《명령》을 거역하게 되므로 할 수 없이 소위 《결사 척후대》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경기 두 문을 앞세우고 경사진 구시산 쪽으로 헐떡헐떡거리며 게바라 올라 왔다. 그러나 이미 산마루의 유리한 진지를 차지하고 만반의 전투 준비를 갖추고 있는 유격대는 놈들에게 섬멸적 타격을 주었다. 놈들은 이날 전투에서 오가와 경부의 수십 명을 살상 당하고 경기관총 1정과 척탄통을 비롯한 많은 장총과 군수 기재를 내버리고 달아났다. 일제 군경들은 거듭되는 참패를 당하였다.

이리하여 력사적인 1937년 6월의 국내 진공 계획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유격대는 승리의 개가 드높이 회사그거우 밀영으로 유유히 돌아 왔다.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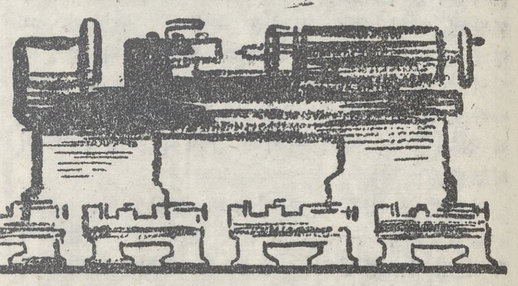
그때로부터 벌써 20 여 년이 지나갔다.

그러나 보천보 전투에 대한 회상은 세월이 흐를수록 조선 인민을 무한한 감격 속에 잠기게 한다.

그것은 이 전투가 우리 민족이 생사 존망의 최후 위기에 처한 가장 암담한 시기에 모든 조선 인민들의 심장 속에 혁명의 거센 불'길을 지펴 놓았으며 청사에 길이 빛날 이야기들을 남겨 놓은 그러한 전투였기 때문이다.

이리하여 그 때 보천보 전투에서 발휘된 애국주의와 영웅주의는 압박 속에서 허덕이는 조선 인민에게 커다란 고무적 힘으로 되였으며 그 위대한 힘은 오늘도 우리들의 심장 속 깊이 살아 있으면서 길이 빛나고 있다.

《손자》를 본 벨트 선반



납시 농기구 공장에는 낡아진 4 대의 벨트 선반이 있다. 희천 기계 제작소에서 만든 새로운 선반기만 보아 온 동무들은 이 기대 옆을 무심히 지날 수 있다. 그러나 이곳 로동자들과 민청원들은 이 선반기를 지극히 사랑하여 《어머니 기대》라고 자랑스럽게 부르고 있다.

그럴 것이 이 《어머니 기대》는 작년 12월부터 금년 4월까지 6 대의 새끼 선반을 낳았고 열 한 대의 각종 기계를 만들었던 것이다. 이 《어머니 기대》가 낳은 6 대의 선반들도 벌써 새끼를 치기 시작하였다. 말하자면 손자를 낳고 있는 셈이다.

그러면 어떻게 이 《어머니 기대》가 《손자》까지 보게 되였는가? 이것을 알자면 이곳 민청원들의 창조적 로력의 자취를 더듬어야 할 것이다.

그것은 당 중앙 위원회의 편지를 토의할 때부터였다. 당의 붉은 편지를 토의하면서 이곳 민청원들은 보다 더 많은 선진 농기구를 만들어 농촌에 보내는 것으로 당의 부름에 보답할 것을 결의하였다.

그러나 당시 공장이 갖고 있는 기계 설비 형편으로써는 이 결의를 실천할 수 없었다. 우선 부족되는 기계 설비 문제를 해결했어야 했다. 그런데 이 부족되는 기계 설비들을 받을 길이 막연했다. 설사 받는다 해도 《천리마》 세월에 언제 그때까지 기다리랴! 이런 심정들이 민청원들의 창조적 로력에 채찍질 했다. 《기계도 사람이 만드는 것인데!》 한 사람 두 사람의 민청원들의 입에서는 이런 말들이 튀겨 나오기 시작했다. 초급 민청 단체는 이를 제때에 포착하고 공작 기계를 자체의 힘으로 만들 것을 전체 민청원들에게 호소했다. 이 문제는 민청원들 속에서 열렬한 반영을 일으켰다. 그런데 일부 민청원들 속에서는 《큰 공장에서도 어려운 문제인데 아무러한 기술과 설비도 없이 어떻게 선반을 만드는가?》고 하면서 불가능한 것으로 생각하였다.

초급 민청 단체에서는 초급 당 단체의 지도를 받으면서 강연회, 좌담회, 직관물 선전 사업을 통하여 기계 공업은 중공업의 핵심이며 기술 발전의 기초로 되여 기술 혁명을 급속히 촉진 시키며 나라를 발전된 공업 국가로 전변시킴에 있어서 결정적 요인으로 된다는 것을 꾸준히 해석 선전하였다. 그러면서 대담하게 생각하고 대담하게 실천한다면 무엇이든지 만들 수 있다는 것을 해석 선전하였다. 이리하여 공작 기계를 자체로 생산하는 운동이 군중적으로 벌어졌다.

그러나 한 번도 기계를 만들어 보지 못한 그들에게는 벨트 도면을 설계하는 기술도 없었고 기계 부속품과 벨트를 만들자니 쎄빠 또는 쁘레나 등의 필요한 중요 기계들이 그곳 공장에는 없었다. 막상 기계 부속품과 벨트를 만들었다 하여도 그를 조립할 기능도 부족하였다. 이렇게 되자 기계를 자체로 만들겠다고 결심하였던 민청원들의 사기가 점차 떨어지게 되였다.

이때 본래 선반을 자체로 만드는 것을 불가능하다고 주장하여 오던 일부 동무들이 다시—되지도 않을 일을 공연히 떠들썩거리여 로력만 없이구… 큰 공장에서도 잘 안되는 일인데—라고 하면서 동요하기 시작했다.

이럴 때 초급 민청 단체는 항일 투사들에 대한 이야기 모임을 조직하였다.

이 이야기 모임에서 민청원들은 일시 동요했던 자신들을 심각하게 뉘우쳤다. 이야기 모임은 민청원들의 사기를 추켜 세우는 량식으로 되였다. —우리가 무엇이 부족하여 못하겠는가? 항일 빨찌산들을 생각해 보라, 원쑤들에게 포위된 항일 빨찌산들에게는 아무 것도 초기에는 없었다. 심지어 못 한 개도 없었다. 오직 그들에게는 일제를 내쫓고 나라를 찾겠다는 불같은 애국심 만이 있었다. 바로 이것이 중요하다. 그들의 이와 같은 고상한 애국심이야 말로 없는 것을 만들어 내게 하고 필요한 것을 찾아 내게 한 것이다. 고추'가루와 남포약으로 폭탄을 만들었고 담배'재, 호박덩굴, 변소'간과 부엌의 흙으로 화약을 만들어 원쑤에게 무리 죽음을 준 것이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떤가? 우리의 재기를 백방으로 지지 보장해 주는 당과 인민 정권이 있지 않은가! 문제는 우리가 난관을 뚫고 나가려는 혁명가다운 기백이 부족한 데 있다—고. 이야기 모임이 있은 후 기계의 새끼치기 운동은 다시 민청원들의 창조적 로력에 의하여 활기를 띠기 시작하였다.

그렇게도 불가능하다던 벨트 도면은 해방 후 문맹을 벗었고 8급의 기능 급수를 가진 민청원 정 기윤 동무에 의하여 그려졌다. 벨트와 치차 등을 비롯한 중요한 기계 부속들은 큰 공장과의 련계하에 그곳 기계를 리용하여 깎았다. 이러한 창조적 로력이 계속되기를 2 개월이 지난 작년 12월에 처음으로 벨트 선반을 자체의 힘으로 만드는 데 성공하였다.

여기에서 경험을 얻어 가지고 금년에 단 3개월간에 5 대의 벨트 선반을 비롯하여 11 대의 각종 기계들을 만들었다. 그리하여 오늘 축력 양수기, 복식 종합 탈곡기, 맥류 파종기, 감자 수확기 등을 비롯하여 30여 품종의 선진적인 농기구들을 농촌에 생산 공급하게 되였다.

이와 같은 기적적인 사실은 전체 로동자들과 민청원들에게 당이 가리키는 길을 따라 대담하게 생각하고 대담하게 실천만 한다면 우리에게는 정복 못할 요새와 극복 못할 난관이란 있을 수 없다는 확신을 더욱 튼튼히 갖게 하였다.

이러한 사업 행정에서 작업 후 1~2시간의 기술 학습, 기술 견습공에 대한 개별 책임제와 매일 한 가지 이상 묻기 운동 등 각종 창의 창발적 사업을 통하여 전체 민청원들의 기능 급수를 1~2급씩 높이였다. 이것은 앞으로 성과를 확대할 담보로 되였다.

지난 기간의 이러한 성과와 경험에 기초하여 초급 민청 단체내 민청원들은 당 중앙 위원회 확대 상무 위원회 결정 정신에 고무되면서 금년 중으로 50 대의 선반을 비롯하여 86 대의 각종 기계를 새끼 쳐서 공장의 물질—기술적 토대를 튼튼히 갖춤으로써 보다 많은 농기구를 농촌에 보내기 위한 투쟁을 힘차게 전개하고 있다.

본사 기자 엄 충길



종합 바이트를 발명한 청년

당 중앙 위원회 확대 상무 위원회 결정을 받들고 평양 전기 공장 민청원들 속에서는 새 기계 발명 운동이 활발하게 전개 되였다.

얼마 전 고 정록 동무는 새로운 종합 바이트를 창안 제작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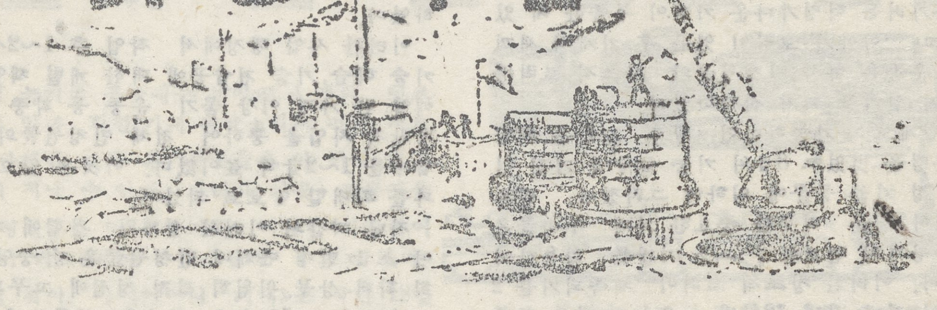
새 종합 바이트 발명은 생산 능률의 제고와 제품의 질을 제고시키는 일대 혁신을 가져오게 하였다.

새 종합 바이트는 간단하고도 편리하게 만들어져 있다. 카바 부분은 물론 베아링 카바와 고정자를 규격에 관계 없이 하나의 바이트로써 조절하여 가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과거 모타 카바를 제작하자면 4 개 공정을 걸쳐야만 하던 것을 한 공정에서 제작할 수 있게 되여 종전보다 4배의 생산 능률을 높이면서도 로력을 절약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일정한 규격된 치수로 되여 있기 때문에 검사 공정을 단축시키며 오작품을 근절시킬 뿐더러 복잡한 기술이 없이도 카바를 제작할 수 있게 되였다.

경험을 살리여 이곳 청년 직장 민청원들은 이 선진적 종합 바이트를 6월 말까지 매개 기대에 도입하기 위한 투쟁에 나서고 있다.

이렇게 되면 청년 직장이 갖고 있는 설비의 50%를 공작 기계 새끼 치기 운동에 돌리고도 제 1차 5개년 계획을 8. 15 이전으로 초과 실행할 수 있다.

붉은 수첩



리 기 영

3. 전 숙 희

평산 트레스트 본부에서 제 3 대대에 배치된 전 숙희를 즉시 본부로 돌려 보내라는 기별이 왔다. 그것은 전 숙희가 1급 통신사의 자격을 가졌기 때문에 본부에서 전화 교환수로 필요하다는 것이였다.

뜻밖에 이런 지시를 받은 전 숙희는 락심 천만하여 어찌하면 좋을른지 몰랐다.

원래 전 숙희는 함경북도 김책시에서 출생하였는데 8.15 해방 전까지 그의 부친은 마그네슘 공장에서 목공 일을 하였다. 숙희는 어머니를 여읜 후에 계모 그늘 밑에서 커났다. 해방 이후 그의 부친은 신북청 건축구에서 목공일을 하고 있으며 지금도 그는 당 단체의 위원장으로 사업하고 있다.

숙희는 1952년에 신북청 녀자 초급 중학을 졸업하였다. 그 후에 부친의 주선으로 신북청 기관구에서 전화 통신수로 있다가 금번에 여기로 탄원하여 왔다. 그는 지난 5년간에 기능 수준을 제고시키여 1급 통신사의 자격을 얻었다.

그가 금번에 청년 사회주의 건설장을 탄원하여 온 동기는 자기의 있는 힘을 다 바쳐서 나라의 사회주의 건설에 이바지하려는 헌신성과 동시에 중로동을 통하여 공산주의의 교양을 받자는 데 있었다.

특히 그는 당의 붉은 편지를 토의하고 실천하는 과정에서 젊은 사회주의 건설자의 영예를 위하여 더 많이 일을 해야 하며 자신을 육체 로동으로 단련시켜야 겠다는 절실한 념원을 품고 있었다. 그는 로동 속에서 행복을 찾으며 로동을 통하여 자기의 정신과 육체를 겸열하고 싶었던 것이다.

그래 그는 철도 건설의 현장 작업을 지원하여 왔는데, 식당 근무로 배치하려는 것을 간신히 모면하고 나니 뜻밖에 또 트레스트 본부에서 전화 교환수로 소환하려 하지 않는가! 숙희는 밥풀을 단단히 붙잡혔다 싶어서 그만 가슴이 터질 것 같은 조바심을 납물데 쳤다.

이에 생각다 못하여 숙희는 정치 부대대장을 찾아가서 딱한 사정을 하소연하였다.

《정치 부대대장 동지! 저는 통신사로 일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갈 생각이 없습니다. 트레스트 지배인 동지에게 말씀을 좀 해 주세요.》

《그렇지만 지배인 동지는 동무의 통신 기술을 잘 알고 지명을 한건데 아니가면 되겠소? 상부의 지시를 복종해야지.》

《통신사 일을 하려면 뭣하러 예까지 왔겠어요, 본 직장에 그냥 있지요. 저는 못 가겠어요.》

전 숙희는 자기의 주장 대로 내 뻗쳤다.

《숙희 동무! 고집을 세우지 말구 오늘은 트레스트로 가야 하오. 가서 일을 해보다가 정히 마음에 없으면 일'자리를 옮기는 한이 있드라도, 청년 사회주의 건설자들은 군대와 같이 규률을 지켜야 하는데 상부의 지시를 거역하는 것은 옳지 않소.》

정치 부대대장 한 석천은 이와 같이 준절히 타일렀다.

《그럼 일주일간 가 있을테니 현장으로 돌아 오게 해 주세요. 저는 정치 부대대장 동지만 믿겠습니다.》

《하여튼 가야 되오. 이따 트럭이 돌아가는 편에 꼭 가야하오.》

《네, 가겠습니다.》

숙희는 그날 저녁 때 평산 트레스트 본부로 돌아가는 트럭을 타고 갔다.

숙희가 지배인실로 들어 가니 그는 미소를 띠우며 이렇게 말한다.

《동무를 소환한 것은 다른 까닭이 아니라 동무는 1급 통신사의 자격을 가졌기 때문에 트레스트에 필요해서 부른거요. 그러니 성실하게 사업을 잘하시오.》

《………》

지배인의 이 첫마디 말은 숙희의 가슴을 펄석 내려 앉게 하였다. 그러나 그는 참자코 섰다가 자기의 일'자리를 찾아 갔다.

그 후 사흘 동안 일을 하였다. 전 숙희는 지배인실에 불려 갔을 때 자기의 심정을 또 한번 호소하였다. 거기에는 정치 부지배인도 있었다.

《지배인 동지! 저는 당초에 이리로 탄원해 올 때도 현장 작업을 지원하였습니다. 전화 교환수 일을 하려면 본 직장에서 할 것이지 뭣하러 철도 건설장에로 탄원해 오기까지 했겠습니까? 그러니 딴 동무를 배치하시고 저는 현장으로 돌려 보내 주십시요.》

《아니 어째 그러오?… 동무가 탄원해 나올 때는 당이 맡기는 일이라면 뭣이든지 다 하겠노라고 맹세하지 않았소? 그렇다면 지금 당은 동무가 트레스트에서 공작하는게 필요해서 부른 것이 아니겠소. 그러지 말고 지배인 동지의 지시 대로 잘 일하시요.》

동석하였던 정치 부지배인까지 이렇게 말하는 데는 다시 더 고를 제재가 못되였다. 숙희는 하는 수 없이 지배인실에서 물러 나왔다.

그러나 그는 종시 마음이 안정되지 않아서 일'손이 제대로 잡히지 않았다. 마치 그는 롱속에 갇힌 새와 같이 애가 타서 잠시 바삐 현지에서 떠나고만 싶었다.

일을 끝낸 후에도 그는 머리가 뒤숭숭하여 견딜 수 없었다. 그럴 수록 현장에서 작업하는 동무들의 여러 가지 모습과 작업장의 떠들썩한 장면이 눈 앞에 떠올랐다.

창조적 로동을 통하여 벌러지는 그들의 즐거운 집단 생활은 다양한 모습으로 날마다 전개될 것이며 그들의 로동의 보람찬 성과는 날이 갈 수록 커질 것이 아닌가! 그런데 자기는 혼자 말뚝과 같이 한자리에 박혀 앉아 있는 것이 얼마나 무료하고 단순한지 모르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 통신 기술을 배운 것이 도리여 후회가 되었다.

과연 그들은 지금 얼마나 즐겁게 현장에서 작업을 하고 있을가! 그들은 저마다 힘껏 육체 로동을 하고 있는데 자기는 여전히 사무원의 의자를 못 면하고 있는 것이 생각할 수록 안타까왔다.

3일 동안을 그렇게 지났다. 숙희는 더는 참을 수가 없었다. 무슨 일이든지 마음에 맞아야만 능률도 내고 안착이 되는 법이다. 그런데 이건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려니까 애만 바작바작 타서 조바심이 쳐졌다. 그는 하루 해를 보내기가 실로 지긋지긋하게 멀미가 났다.

숙희는 지배인실로 들어가서 다시 문제를 제기하였다.

《지배인 동지! 저는 죽어도 전화 교환수 일은 못하겠습니다. 현장으로 돌려 보내 주십시요.》

《아니 또 그 소리야?…응!》

《정말 더는 못하겠어요. 글쎄 신북청에서 예까지 철도 건설장으로 탄원해 와서 전화 교환대 앞에만 앉아 있으란 말입니까? 저는 너무 서러워서 못견디겠어요.》

숙희는 고개를 숙이고 정말로 눈물을 흘리는 것이다.

《동무에게는 자유주의 사상이 있소. 당이 부르는 길이라면 물불을 헤아리지 않고 헌신적으로 나서는 것이 옳은 태도라 하겠는데 동무는 어째서 제 마음 대로만 하겠다는거요 응?》

이 말을 듣자 숙희는 고개를 번쩍 쳐들었다.

《그렇습니다. 저는 당이 부르는 일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을 결의를 지금도 다지고 있습니다. 다만 저는 여기로 탄원하여 올 때 현장 작업을 소원하였던만큼 그 결심을 실천하고 싶어서 그러는 것입니다. 저는 제손으로 땅을 파고 목도를 메고 뻬투를 잡고 하는 중로동을 해 보려고 왔지 본 직장에서 처럼 전과 통신사로 일할 생각은 꿈에도 해 본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저의 당초의 소원 대로 현장 작업을 시켜 주십시요. 통신사야 구하려면 다른 동무들 중에도 얼마든지 있을게 아닙니까.》

《그 참 큰 떼'군인데! 어째 모두를 현장이 소원이람!》

하고 건장한 몸'집을 가진 트레스트 지배인은 허허 웃는다.

그 때 민청 위원장이 옆에 있다가

《동무! 자유주의적 행동을 하면 좋지 못하다는데 왜 자꾸만 이러지요?》

하고 핀잔을 넘다 준다.

《지배인 동지! 비신할 동무를 대려 오도록 할테니 저를 놓아 주십시요.》

숙희는 다시금 떼를 써 보았다.

《거 할 수 없구만—우리가 집시다. 배짱이 어찌 센지 휘잡을 수가 없는 것을 어쩌겠소. 그럼 소원 대로 보내 줄테니 그 대신 현장에서 일을 잘해야 된단 말야. —만일 일을 잘못 한다는 소문이 들리면 그당장 통신사로 잡아 올테니까, 하하하. ……그런 각오 밑에서 현장으로 돌아가오. 알겠소?》

《네 고맙습니다. 결코 저는 현장 작업에서 남에게 뒤지지 않겠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맹세하겠습니다.》

전 숙희는 지배인의 승낙을 들었을 때 얼마나 기쁘든지 몸이 공중에 뜬 것 같았다.

그 이튿날—숙희는 제 3대대로 파견되여 침교리로 다시 돌아갔다.

그리하여 그는 당초의 소원 대로 제 1 중대 1소대에 배치를 받았다.

1소대에는 녀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녀성 분대를 따로히 조직할 수 있었다.

4. 리 수복 영웅 돌격대

새해에 들어 서면서 제 3대대에서도 공사의 본격적인 작업이 시작되였다.

그러나 청년 건설자 대원들에게는 공구(工具)가 원만히 차례가지 못하였다.

현장에는 삽과 곡괭이 뿐 정과 망치도 모자랐다. 그들은 언 땅과 바위'돌을 까내기가 여간 힘들지 않았다.

1월 중순경의 추위는 더욱 혹심하였다. 50센치 이상의 두께로 언 땅을 파는데 삽으로는 어림도 없었다. 곡괭이로 내리 찍어도 탁탁 튀기만 하였지 언 땅은 한치도 패이지 않는다. 그것은 이 고장이 원래 점토 지대여서 진흙땅은 돌보다도 더 굳게 얼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참나무를 깎아서 정 대용품으로 땅'바닥을 뚜드려 박기도 하였다. 그렇게 언 땅의 표토(表土)를 두부모 처럼 한쪼각씩 떼여 내였다. 부락 주민들은 이런 광경을 목격하고 자기 집에 있는 연장들을 있는 대로 빌려 주었다.

청년 건설자들은 그 동안에 부근 주민들과 친숙하여 졌다. 그들은 마을 사람들의 지원을 거저 받고만 있지 않았다. 먼저 온 선발대원들은 오던 날부터 주인'집 일을 돌보아 주고 부락 사업을 협조하였다. 그들은 각 분대 별로 군대 가족과 애국 렬사 유가족들을 한 집씩 아주 메 맡았다. 그것은 현장 작업 시간 이외에 그 집들의 땔 나무를 해다 주기 위해서였다. 식전마다 집 안팎의 청소를 하고 불결한 변소를 개조하였다. 그들은 우물을 쳐내 주었으며 부락의 위생 문화 사업을 협조하였다. 녀성 대원들도 남자들과 같이 열성적으로 참가하였다.

그들은 손포가 모자라는 집에 가서 빨래를 해 주고 아이들의 머리를 감아서 빗겨 주기도 하였다.

어느 날 밤에 대대에서는 사업 추진을 위한 대대 당 집행 위원회를 대대장실에서 소집하였다.

회의에서는 정치 부대대장 한 석천이 보고하였다. 그는 제 3 대대가 맡은 구간에는 큰 공사가 두 곳 있는데 그 하나는 7형제 바위를 까내고 절벽 사이로 1 키로메터의 로반을 닦는 것이요, 다른 하나는 침교천에다 아치식 다리를 건설하는 것이라고 그동안 수차에 걸쳐서 현장을 답사한 구체적 정형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하였다. 그중에도 7형제 바위—12만 립방 메터의 암벽을 까부시는 것은 난공사이며 많은 수량의 화약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칠성골 7형제 바위는 옛날 치성터로 위하여 내려온 미신이 있었던 곳이니 만큼 무사히 폭발을 하여야지 만일 조그만한 사고라도 생긴다면 부근 주민들에게 좋지 못한 영향이 미칠 것을 고려하여 십분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특히 그 점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당원들은 언제나 핵심으로 되여서 대원 대중의 모범이 되고 그들의 창발성을 발휘하도록 하며 대중의 힘에 의거하여 사업을 추진시킬 것이며, 일인 일건의 창의 고안 운동을 전개하여 작업을 소기계화, 반기계화함으로써 작업 능률을 높일 데 대하여 말하였다. 그날 밤 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들이 토론되였다.

7형제 바위는 암벽만 까부시면 로반을 닦기는 그리 어려울 것이 없겠으나 침교천에 다리를 놓는 것은 수중 굴착 작업을 해야 될 곤난이 있다. 이 추운 겨울에 물 속에 들어 가서 암반이 나올 때까지 굴착 작업을 한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다. 그것도 얕게 파서 암반이 드러난다면 모르지만 만일 깊이 파도 암반이 나오지 않는 경우에는 큰 일이다. 그러니만큼 하루라도 빨리 서둘러야만 기간 내에 교각을 세울 수 있겠는데 아직까지 공구가 제대로 해결되지 못하였다. 이에 대하여 트레스트에 문제를 제기할 것과 다른 한편으로는 각 중대들에서 가능한 한 자체 해결의 방도를 취하기로 하였다.

회의에서는 중대장 이하 여러 사람들이 토론에 참가하였는데 그들은 모두다 어떠한 애로가 있드라도 곤난을 극복하고 두 곳의 난공사를 기한전에 완공할 것을 굳게 결의하였다.

제 3중대 소속인 당원 박 지성이도 토론에 참가하였다. 박 지성은 제대 군인이다.

그는 단천 철도대에서 복무하다가 이번에 청년 철도 건설장으로 탄원하여 왔다. 박 지성은 인민 군대의 공병으로서 락동강 계선까지 진출하였을 때 전차 진격로를 개척하고 적의 지뢰 해제와 적 전차를 파괴하는 습격조 활동에도 참가하였었다. 그런데 그는 아군이 재진공하여 평양을 해방시킨 후 12월에 적의 대폭격이 있을 때에 그만 중상을 당하였다.

폭탄 파편이 그의 온 몸에 박혀서 생명이 위험하였는데 즉시 군대 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게 되여서 그는 죽을 목숨이 다시 살아 났다. 지금도 그의 몸에는 빼내지 못한 폭탄 파편들이 박혀 있고 온 몸은 상처 투성이로 되였다. 그래 박 지성은 언제나 생각하기를 중상을 당한 자기가 재생의 은혜를 입은 것은 순전히 인민이 주권을 잡은 우리 나라의 우월한 제도의 덕택이라고 하였다.



그의 이런 생각은 우리 당의 은혜를 잊을 수가 없으며 그 무엇으로든지 나라를 위해서 일해야 겠다는 결의에 충만되여 있었다. 했기 때문에 그는 제대 후에도 사회 보장에 넘기겠다는 권고를 듣지 않고 단천 철도 보위대에서 복무하다가 이번에 여기로 탄원해 왔는데 무엇이든지 힘드는 일이라면 그는 자신이 담당해서 헌신적으로 사업하겠다는 공화국 청년의 혁명적 열정에 불타고 있었다. 그날밤 회의에서 그는 간단히 자기의 결의를 말한 후에 다음과 같이 토론하였다.

《지금 우리 제 3 대대에서는 7형제 바위를 까내는 것이 우선 시급한 난공사로 되여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떠한 곤난이 있드라도 이 공사를 제때에 완공해야 하며 그것은 반드시 우리 청년들의 힘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대대 지도부에 제의하겠습니다. 우리 제 3중대에서 리 수복 영웅 돌격대를 조직하여 7형제 바위를 까내는 공사를 담당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박 지성의 박력 있는 토론은 청중을 감동시켰다. 동시에 그의 토론은 보수주의의 비난을 듣는 고 국경 대대장의 작풍을 신랄하게 비판하는 것으로도 되였다.

그 이튿날 제 3중대에서는 혁신자들로만 27 명을 선발하여 리 수복 영웅 돌격대를 조직하였다. 돌격 대장은 청진 기관구에서 온 김 경석을 선출하였는데 박 지성이도 이 돌격대의 성원으로 되였다.

7형제 바위를 발파하려면 수공업적으로 하드라도 우선 정과 망치 같은 공구가 충분히 있어야 한다. 돌격대원들은 정과 망치, 집게 등을 자체로 구해 보자고 발기하여 나섰다.

박 지성, 강 희렬, 박 찬길 기타 대원들은 만년 광산, 신북청 기관구 등을 비롯한 여러 기업소를 찾아가서 현지 사정을 호소하였다.

그들은 로동자들에게 철도 건설에서의 애로를 설명하고 련대적인 지원를 호소한 결과 다소의 공구를 해결하게 되였다.

박 지성은 만년 광산에서 정, 망치 등을 구하여 왔다.

그리하여 제 3중대의 리 수복 영웅 돌격대원들은 7형제 바위의 첫 바위를 손으로 뚫기 시작하였다. 그들은 손으로 뚫는 것도 경험이 없었다. 철도 부문에서 일하던 전철수, 검차원 선로원들인 그들에게는 수굴 작업도 힘드는 일이였다.

하건만 그들은 돌격전을 들이대여서 밤낮 없이 일을 계속하였다.

대대 지도부에서는 그들이 너무 일들을 하기 때문에 충분한 휴식을 하라는 《특별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그들은 몰래 틈틈이 자다가 빠져 나가서 철야 작업을 하고 있었다.

처음에는 그들의 서투른 망치질이 정잡이의 손'등을 때려서 생채기를 내기도 하였지만 차차 해나니 숙련이 되였다.

그 때 박 지성은 남몰래 연구를 해보았다. —이렇게 수공업적으로 하지 않고서는 어떻게 대발파를 할 도리가 없을가?

7형제 바위의 첫째번에 있는 말형 바위에는 중간에 큰 자연 굴이 뚫려였다. 그것이 떼의 신비성을 가진 전설의 동굴이다.

박 지성은 뙤뜻 그 생각이 떠올랐다. 동굴 속에다 화약을 장치할 수만 있다면 힘 들여서 생구멍을 뚫지 않고서도 대발파를 할 수 있을 것이 아닌가? 어찌면 될 상도 싶었다.

그 때 마침 고 국경 대대장도 나와서 현장을 둘러보고 있었는데 박 지성은 대대 지도부에 동굴 속을 조사해 보자고 제의하였다.

《저 위험한 절벽을 어떻게 내려간단 말이요?》

고 국경 대대장이 난색을 보이며 묻는 말에 《동바를 타고 내려가면 됩니다.》 하고 박 지성은 심상히 대답하였다.

사실 그 굴로 내려 가려면 바위 우에서 부터 바'줄을 탈 수 밖에 없었다.

굴 우로는 까마득하게 바위 꼭대기가 쳐다 보이고 그 밑에는 천야 만야한 절벽 아래로 시퍼런 강물이 내려다 보이는데 더구나 그 굴 속에는 귀가 돋힌 큰 구렁이가 도사리고 앉았다는 데는 미상불 드아한 생각이 없지 않았다. 누가 이 동굴의 《신비》를 백일하에 드러내 보일 것이냐?

그러나 박 지성을 비롯한 많은 돌격대원들은 너도 나도 굴 속에로 들어 갈 것을 다투어 나섰다. 그 때 제 3중대장은 돌격 대장 김 경석에게 이 임무를 맡기였다.

그 즉시 김 경석은 자기의 허리에 잡아맨 동바'줄을 타고 절벽으로 붙어 내려갔다. 그들은 바위 우에다 그 바'줄을 단단히 동쳐 매였다.

정치 부대대장 한 석천과 제 3중대장을 비롯하여 돌격 대원들은 손에 땀을 쥐고 바위 밑을 내려다 보았다. 그들은 그 밑을 내려다 보기만 하여도 현기증이 났다.

김 경석은 바위 굴 앞 턱에다 발을 딛고 머리를 들이 밀어서 굴 안을 자세히 살펴 보았다. 굴 속은 캄캄하였다. 그는 굴 속으로 들어 가서 전지'불로 구석 구석을 샅샅이 비쳐 보았다. 그런데 그가 들어간 굴 안에는 아무 것도 없다. 빈 굴이다. 있다는 것은 오직 새똥, 나무'잎과 풀이 썩은 것들 뿐이였다. 굴의 깊이는 5~6메터나 될 것 같다. 자연굴의 《신비》란 바로 이런 것이였다. 김 경석 돌격대장은 이 굴에다 장약을 하고 발파를 할 수 있겠다는 결론을 내렸다.

박 지성은 그의 말을 듣고 자기가 생각한 대로 일이 되여가는 것이 여간 기쁘지 않았다.

박 지성은 그 즉시 고 국경 대대장에게 자기의 의견을 말하고 첫 발파를 시험해 볼 것을 요청하였다.

《대관절 화약은 얼마나 가지면 될 줄로 동무는 생각하오? 저 바위를 발파하자면 말요.》

고 국경 대대장은 이렇게 묻는 것이였다.

《제 생각에는 850 키로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몇이요? 850 키로…》

《네.》

고 국경은 펄쩍 뛰며 놀랬다.

《절대로 그렇게는 될 수 없소!》

대대장 고 국경은 첫 마디로 그들의 의견에 강경히 반대하였다.

《동무들은 사업을 망치려고 하는거요. 어째 그러오? 아니 이 큰 바위를 발파하는데 불과 850 키로라니 그게 어데 당한 말이요.》

《그럼 대대장 동무는 얼마나 가지면 발파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박 지성은 이렇게 반문하였다.

《적어도 한 톤 500은 가져야지.》

그의 말은 대원들의 계산보다도 거의 곱절이나 되는 수량이다. 고 국경은 화약을 한 키로 그람도 못 구해 오면서 어디서 이런 계산이 뢰명게 나왔는지 모르겠다.

《대대장 동지! 한 톤 5백 키로는 너무 많습니다. 저는 공병으로서 발파의 경험이 있기에 하는 말이온데, 850 키로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하고 박 지성은 고 국경 대대장의 의견에 반대하였다.

《누군 발파의 경험이 없어서 하는 말인가? 모르거던 동무는 가만이 있소!》

고 국경은 별안간 성이 나서 소리를 꽥 지른다.

《저는 자신이 있습니다. 공연히 허튼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 박 지성이 혼자 자신을 누가 믿겠다구…》

《아니 대대장 동지! 그것은 제 생각에도 850 키로면 발파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고 기사장 부 기순이가 참다 못하여 이렇게 말하였다.

《모르는 소리는 하지 마시오. 만일 그랬다가 발파에 실패하면 누가 책임을 지려구, 그만 두시오!》

대대장 고 국경은 한팔을 내저으며 끝까지 그들의 의견에 반대하였다.

그 때 정치 부대대장은 어느말이 옳은지 판단을 내리기가 어려웠다. 하긴 그도 고 국경이가 보수주의 사상이 있는 줄 알지마는 너무도 강경하게 자기의 주장을 내세우기 때문에 발파에 경험이 없는 한 석천은 결론을 내릴 수 없었다. 결국 박 지성의 제의는 묵살되고 발파 작업은 화약을 구할 때까지 무기 연기가 되였다.

뢰외에 발파 작업이 중지되자 박 지성은 안타까웠다. 그것은 확실히 발파할 자신이 있는데 공연한 대대장의 고집으로 그 일을 못하게 되였기 때문이다.

이 일을 어쩌한단 말이냐?

그러나 박 지성은 그대로만 있을 수 없었다. 그는 제 3중대장과 돌격 대장에게 우선 화약을 구해놓고 보자고 제의하여 허락을 얻었다.

그는 신계군 내무서를 방문하고 급한 사정을 하소연하였다. 소개장을 받아 가지고 박 지성은 만년 광산으로 가서 지배인을 만나 교섭을 한 결과 화약 한 톤을 꾸어 오는데 성공하였다.

그동안이 사흘을 경과하였다.

화약을 구해 오자 박 지성은 발파 문제를 또다시 상부에 제기하였다.

그날 아침에 대대 지도부 간부들은 7형제 바위의 현장으로 나갔다.

《좋소, 어데 해보시요. 그러나 만일 발파에 실패한다면 그 책임은 동무가 져야하오.》

대대장 고 국경은 박 지성을 손으로 가리키며 이와 같이 엄숙히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였다.

박 지성은 자신 만만하게 대답하였다. 그는 즉시 대원들과 함께 발파 준비를 하였다. 우선 동굴까지 내려가는데 발 붙일 자국을 정으로 쫓았다.

그리고 동굴 안으로 들어가는 장약을 잘 할 수 있도록 더 깊고 크게 구멍을 넓게 뚫었다. 이렇게 준비가 끝나자 그들은 화약 850 키로를 장약하기 시작하였다. 화약을 장약하고 발파하는 것은 박 지성이가 혼자 도맡아 하였다. 대원들은 단지 화약을 굴에까지 내려 가는 것만 도와 주었을 뿐이다.

그는 능숙한 솜씨로 굴 속에다 장약을 끝내자 도화선에 불을 달아 놓았다. 사람들은 모두 5리 밖까지 산 속으로 피하여 들어갔다. 점고리의 주민들도 안전한 장소로 피신을 시켰다. 점화로부터 19분만에 폭발되게 심지를 달았기 때문에 그 동안에 그들은 5리 길을 넉넉히 갈 수 있었다. 정시각 조금전에 바위의 한모퉁이가 불끈 솟아 오르는 것 같더니만 《꽝…꽝…》하는 폭음이 천지를 뒤엎는듯 검은 연기가 불'기둥처럼 공중으로 솟구쳐 올랐다. 그것은 한동안 부근 일대를 혼돈 세계로 만들었다.

《어떻게 되였을가?》

피신을 갔던 사람들은 연기와 먼지가 걷힌 뒤에야 모두들 현장으로 되돌아 왔다.

그런데 조금전까지 있었던 그 큰 바위'덩이가 온데 간데 없이 없어지지 않았는가…. 7형제 바위의 첫 발파는 이와 같이 완전히 성공하였다. 바위'덩이는 단방에 하늘로 날아갔다.

《만세! 만세!》

현장으로 달려 온 대원들은 소리 높이 만세를 웨치며 들뛰였다. 그러자 돌격대원들은 박 지성과 돌격대장 김 경석을 에워싸고 그들을 공중에다 집어 던지서 헹가래질을 치며 한바탕 적적궁을 놀았다. 그날은 바로 2월 9일이였다.

(다음호에 계속)



《문벌》과 가족주의

김 사 억

한때 강원도 철원군 저탄리의 일부 청년들의 사상 생활에는 유해로운 낡은 관습이 강하게 남아 있었다. 그것은 허씨 성을 가진 청년들에게 특히 심하였다. 이들은 민청 생활에서 서로 잘못을 보고도 비판하려 하지 않고 결함을 감싸 주고 있었다. 심지어 일부 민청원들은 다른 성을 가진 훌륭한 동무들의 지도를 받으려고 하지 않으며 또한 배척하는 현상까지 있었다. 더욱 엄중한 것은 일부 청년들은 혁명에 해독을 주는 악질 분자의 행동을 보고도 눈을 감았다.

저탄리 내 청년들의 사상 생활에 있었던 이러한 경향은 《문벌》 관념에서 출발하였던 것이다. 그러면 문벌이란 무엇이며 그의 본질은 무엇인가?

문벌이란 봉건 사회 하에서의 가족 제도의 산물인데 같은 성, 같은 본을 가진 성씨가 중심이 되여 이루어진 가족주의의 한 표현 형태이다.

과거 우리 나라 봉건 사회에서 문벌이 강한 가문들은 여기 저기에 같은 성씨들만 사는 부락을 형성하고 자기 조상의 전통을 자랑하면서 강인한 혈연 가족적 뉴대를 맺고 살아 왔다.

이렇게 같은 성, 같은 본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 촌락을 이루고 사는 집단을 가문 또는 《문중》이라고 하였다.

바로 이와 같은 《문중》을 중심으로 문벌이 형성되였다.

이 관념은 문중 상층부와 통치 계급의 계급적 리해 관계와 부합되였기 때문에 더욱 조장되여 왔다.

그리하여 같은 성, 같은 본을 가진 성씨들은 자기가 속한 문중을 자랑하며 가문 내에서 《화목하게》 지내는 것을 자랑하였으며 또한 그것을 출세와 권세 다툼의 밑천으로 삼았다. 사람들은 자기 가문 중에서 높은 벼슬을 한 사람이 있으면 그것을 벼슬과 권세 다툼의 미끼로 삼았다. 그래서 다른 문중들이 출세하는 것을 시기하였으며 배척하였다. 그러나 문중 내부에는 빈부의 차이와 계급적 대립이 있었다. 때문에 같은 성, 같은 본을 가진 성씨들이 《화목하게》지낸다는 것은 전적으로 착취 계급의 리익을 옹호하는 것이다.

강원도 철원군 저탄리의 청년들은 바로 이와 같은 문벌 관념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이다.

문벌 관념은 혁명에 유해로운 사상이다. 그것은 혁명 대렬의 단결을 약화시키며 지방주의, 가족주의를 발생시킨다.

문벌주의는 본질에 있어서 가족주의와 다름 없는 쌍둥이 형제이다.

가족주의, 지방주의는 지방적 분산성이나 문벌 제도, 착취 계급 내부에서의 출세와 권력 다툼을 토대로 하여 발생하는 것이다. 가족주의와 지방주의가 우리 혁명에 막대한 해독을 주는 종파의 온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더우기 문벌주의는 혈연적 친척 관계로 얽혀 있기 때문에 견인력을 가지고 있는 점이 극히 유해롭다.

이렇게 문벌주의나 가족주의는 한 사람의 잘못으로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옳지 않은 길로 떨어지게 된다. 이런 관념을 가진 사람들은 무원칙한 정실 관계에 의하여 그루빠를 형성하며 뒤에서 이러쿵 저러쿵 우리 당 정책을 시비하며 나아가서 맑스—레닌주의 원칙과 우리 당 정책의 관철을 방해하는 것이다. 또한 결함을 호상 융화 묵과하고 정실 관계에 빠지기 때문에 불순 분자들과 혁명의 원쑤들이 우리 대렬 내에 기여들어 올 수 있는 틈을 만들어 주는 것이다.

보는 바와 같이 문벌 관념은 우리 혁명에 대하여, 우리 청년들의 단결에 대하여 해독을 주는 극히 유해로운 사상 경향이다. 오늘 당의 정확한 지도와 청년들 내부에서의 날카로운 사상 투쟁에 의하여 문벌 관습은 많이 없어지고 있다.

문벌 관념이 강하였던 철원군 저탄리 허씨 문벌에 뿌리 박고 있었던 청년들은 문벌주의의 해독성에 대하여 점차 리해하게 되였으며 문벌주의를 반혁명 분자들이 리용하려 한다는 것을 잘 알게 되였다.

그러나 일부 지방의 청년들 속에는 아직 문벌 관념의 잔재와 그 여독이 남아 있다.

오늘 우리 사회는 봉건 사회가 아니라 모든 인민이 동지적 협조와 원조의 관계를 맺고 생활하는 사회주의 사회이다. 허씨건 리씨건 윤씨건 반혁명 분자를 제외하고는 다 혁명을 위하여 단결하여야 하며 동지들 간의 관계에서는 원칙적 립장을 견지하여야 한다.

우리 청년들은 우리 혁명 대렬의 단결을 약화시키는 문벌주의 잔재를 청산하기 위한 투쟁의 선두에 나서야 할 것이다.

이것을 아십니까

《문》 인공 위성에 탄 개의 생사를 어떻게 알아 내는가?

《답》 인체나 동물체의 활동은 왕왕 아주 적은 전류의 변화를 동반한다. 례를 들면 심장이 한 번 뛸 때마다 전류의 기복이 있는데 우리는 그를 심전류 혹은 심전파라고 한다. 마찬가지로 뇌수의 활동 혹은 정서가 있을 때에 전류의 기복이 있는데 이것을 뇌전류 혹은 뇌전파라고 한다. 이런 전파의 상태를 분석하면 심장과 뇌의 정상 여부를 알 수 있다. 두 번째의 인공 위성은 라이까의 심장 호흡 및 혈압이 일으킨 전류의 변화를 발사기 중에서 확대하고 또 무전 신호로 변화시켜 지면에 발신하면 이 신호를 받아 다시 심전파 등을 다시 그린다. 이 전파의 상태에 근거하여 라이까의 맥박, 호흡, 혈압이 정상적이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던 것이다. 물론 라이까를 실은 통 안에는 호흡 상태, 심장 활동, 혈압 및 기타 자료를 기록하는 기구가 있었던 것이다.

《문》 무엇 때문에 인공 위성과 로케트는 황혼과 새벽에라야 볼 수 있는가?

《답》 인공 위성과 로케트는 달과 마찬가지로 그 자체는 빛을 내지 못한다. 우리들이 그를 볼 수 있는 것은 그가 발사하는 태양광 때문이다. 낮에 인공 위성이 우리 부근의 하늘을 지날 때에도 태양광을 발사하지만 하늘이 너무 밝기 때문에 볼 수 없다. 밤에는 태양광이 지구에 막혀여 인공 위성이나 로케트를 비추지 못하기 때문에 역시 그를 볼 수 없다. 오직 황혼이나 새벽이라야 볼 수 있다. 왜냐 하면 이때에는 태양이 지면을 비치지 못하나 고공을 날아가는 인공 위성은 해'빛을 받을 수 있으므로 그를 볼 수 있다.

가정출신과 생활의 길

리 홍 종

이 글은 한 독자의 편지에 대한 대답으로 쓴 것이다. 고중을 졸업하고 생산 직장에서 일하는 한 독자가 편집부에 보낸 편지에는 《나는 왜 이런 좋지 못한 가정에서 태여났는가 하고 안타까와하며 자기의 전도 문제에 대하여 때로는 고민한다》는 사연을 쓰고서 편집부의 방조를 요구하였다. 이 청년의 가정은 이전에는 개인 상업을 하였으며 현재는 생산 협동 조합에서 일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제 독자들과 함께 한 독자의 가정 출신 문제에 대한 《안타까움과 고민》에 대하여 토론해 보기로 하자.

계급 투쟁과 가정 출신

그러면 가정 출신이란 무엇이며 그것이 왜 문제로 되는가? 우리는 먼저 이 문제로부터 이야기의 실머리를 풀자.

사람들의 가정 출신이나 성분을 론하게 되는 것은 그것이 적들과의 사상 투쟁과 정치 투쟁에서 문제로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사람들의 정치적 립장과 사상은 그가 생활하고 있는 물질적 생활 조건이 반영된 것이다. 물질 생활 조건은 사람들의 정신 생활을 형성하는 근원으로 된다. 따라서 물질 생활 조건이 변화하면 사람의 정치적 견해와 사상도 변화한다. 이것은 맑스—레닌주의 변증법적 유물론이 가르치는 진리이다.

자본주의적 경제 토대에서 생활하는 사람의 사상을 지배하는 것은 개인주의적 자본주의 사상이요, 소상품 경제 토대에서 생활하는 사람의 정신 생활에는 소부르죠아 사상이 지배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로동 계급은 생산 수단을 전혀 가지지 못하고 자본가에게 가혹한 착취를 받는 무산 계급이다. 따라서 그는 착취 제도를 증오하는 사상과 혁명성과 조직성이 어느 계급보다도 강하고 견결하다. 그들의 정신 생활에는 집단주의가 지배적이다. 사회주의 혁명에서 로동 계급이 령도 계급으로 되여야 하며 또 되는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이미 사회주의 경리가 인민 경제 각 부문에서 유일적으로 지배하고 있으며 이전에 개인 경리로 생활하던 사람들이 사회주의 경리 형태에 망라되여 자기의 로력으로 생활하는 근로자로 되였다. 따라서 그들의 정신 생활도 사회주의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그러면 왜 경리 형태의 사회주의적 개조가 완성된 오늘에도 사람들의 출신 성분에 대하여 말하게 되는가? 그것은 다음과 같은 사정으로써 설명된다.

사람들의 의식 발전은 경제의 발전보다 항상 뒤떨어진다. 따라서 낡은 사상은 그것을 산생한 물질적 생활 조건이 소멸된 이후에도 상당한 기간 잔존할 수 있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 보드라도 이전에 개인 경리 토대에서 생활하던 사람들이 사회주의 경리에 망라되기는 하였지만 그들의 의식과 생활 관습에는 아직 낡은 경리 형태에서 산생한 사상 잔재— 로동에 대한 불성실한 태도, 리기주의, 자유주의, 종교적 미신 등이 남아 있다. 자본주의적 가정 출신의 청년들에 대하여 말한다면 그들 자신이 직접 사람을 착취하지는 않았다 하드라도 그의 가정을 지배한 자본주의적 견해와 관습에 감염되여 있은 까닭에 낡은 잔재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낡은 사상 잔재들은 우리 사회의 전진 운동을 저해한다. 다른 방면으로 오늘 남조선을 강점하고 있는 미제와 리 승만 역도는 갖은 수단을 다하여 맑스—레닌주의를 반대하여 반동적 부르죠아 사상을 침습시키기 위한 선전을 발광적으로 감행하고 있다. 이러한 반동 선전은 낡은 사상 잔재를 가진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여 낡은 잔재를 조장시킬 수 있다. 그러므로 사회주의 건설의 완성과 공산주의에로의 전진 운동을 촉진시키기 위하여서는 이러한 낡은 사상 잔재를 완전히 극복 청산하며 적대적 사상이 침습하는 것을 반대하여 투쟁해야 한다. 그리하여 전체 인민 대중의 사상이 사회주의 일색으로 전변되게 하여야 한다.

오늘 우리 사회에서 가정 출신에 대하여 말하게 되는 것은 사회주의 혁명의 촉진을 위하여 전체 인민을 붉은 사상으로 무장한 사회주의—공산주의 건설자로 만들자는 데 있는바 사상 개조를 하자면 그가 어떤 가정에서 어떠한 사상적 영향을 어느 정도로 받았는가를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가정 출신과 생활의 길

그러면 이제는 한 독자가 제기한 가정 출신에 대한 《안타까움과 고민》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 가자.

서두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가정 출신은 누구도 제 마음 대로 선택할 수 없는 것이다. 생각해 보라! 그 누구도 자기가 로동자의 가정에서 출생했으면 좋겠다든가 상인 가정에서는 출생하고 싶지 않다든가 자의로 결정할 수는 없지 않는가!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가정 출신이 좋지 않다고 하여 《나는 왜 그런 가정에서 태여났는가》 하고 안타까와 하거나 고민하는 것은 부질없는 일이다. 어째서 이런 또는 저런 가정에서 태여났는가를 생각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해결될 수 없는 문제이다.

그러면 가정 출신이 좋지 못한 사람은 영원히 올바르고 보람 있고 전망 있는 생활의 길— 로동 계급의 길에 들어설 수 없단 말인가? 그런 것은 결코 아니다. 매개 사람들에게 있어서 생활의 길은 가정 출신과는 달리 선택할 수 없다거나 전혀 피동적인 것이 아니다. 사람은 생활 중에서 가정 환경의 영향을 받으면서도 주동적으로 자기의 생활의 길을 선택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생활의 길은 어디까지나 자기의 의지의 힘에 의하여 선택할 수 있는 것이다.

가정 출신이 좋지 못한 사람도 자기의 생활의 길은 좋은 것으로 택할 수 있으며 반대로 가정 출신이 좋다 하드라도 생활의 길은 잘못 택할 수 있다. 물론 가정 출신이 좋은 사람에게 있어서는 정확한 길을 택하기가 쉽고 가정 출신이 좋지 못한 사람에게 있어서는 보다 많은 곡절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렇게 보면 가정 출신이라는 것은 어찌할 수 없는 것이나 그것이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물론하고 생활의 길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 요인은 자기 자신의 의지라는 것이 명백하다.

독자들은 프로레따리아 혁명의 수령이며 맑스주의의 창시자인 맑스와 엥겔스가 비근로 계급의 가정 출신이라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이다. 그들의 가정 출신은 비근로 계급이였으나 그들이 택한 생활의 길은 로동 계급의 생활의 길이였으며 그들은 자기의 전 생애를 자본주의를 매장하기 위한 프로레따리아트의 혁명 사업에 바쳤던 것이다. 국제 공산주의 운동 력사를 보드라도 비근로 계급의 출신인 혁명가들이 드물지 않았으며 그들이 프로레따리아 혁명을 위하여 영웅적으로 싸운 사적을 이야기하여 주고 있다.

편집부에 편지를 보낸 청년을 포함하

여 우리 나라의 모든 비근로 계급 출신의 청년들은 이미 자기들의 생활의 길을 택하였다. 가정 출신이 반혁명적인 극소수의 분자를 제외한 모든 청년들은 두 갈래의 길 중에서 자본주의와 리별하고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의 길을 택하였다. 그들은 자기의 부형들과 함께 우리 당이 펼친 사회주의 협동화의 길에 들어서 사회주의 근로자로 되였다.

그러면 이제 무엇이 문제로 남아 있는가? 낡은 사상 잔재를 청산하고 사회주의 사상으로 무장하여 사회주의—공산주의 위업에 모든 힘과 재능을 바치는 이외에 어떤 문제도 존재하지 않는다.

가정 출신과 발전 문제

자기의 전도 문제 즉 장래 발전 문제에 대하여 고민할 필요가 있는가? 절대로 없다. 우리 당은 그들에게 발전할 수 있는 광활한 길을 열어 주고 있으며 그들을 적극 방조하고 있다. 자신의 노력과 투쟁 여하가 문제로 될 뿐이다. 만일 그가 사상 개조와 단련에 노력하여 당과 혁명 위업에 충실하며 학습과 로동에 성실하여 풍부한 지식과 활동력을 소유하였다면 국가는 그를 귀중히 여기고 중요한 책임도 맡길 것이며 사업 성과에 대하여 응당한 평가를 줄 것이다.

김 일성 동지는 함북 도 당 확대 전원 회의에서 한 연설에서 인테리에 대한 태도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일부분은 출신으로 보아 과거에 부유하게 살았고 또 그 중에는 후퇴 시기에 적들의 강압에 의하여 미국놈 통역도 한두 번 했던 사람도 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용광로에 사고가 났을 때 여러번 로동자들과 같이 불 붙는 용광로 속으로 들어 갔다 나왔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전선에서 우리 인민 군대가 불을 뿜는 적의 또치카에 자기 가슴을 갖다 얹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영웅적 인테리, 영웅한 인테리를 무엇 때문에 신임 못하겠는가?》 라고 지적하시였으며 또한 인테리들 자신은 당과 로동 계급의 전사이라는 영예와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우리 당은 과거에는 우리 혁명을 반대하였거나 잘못이 있은 사람이라 하드라도 오늘은 혁명을 지지하고 일을 잘 한다면 그들과 단결하여 같이 나아 갈 방침을 시종 일관 견지하고 있다. 가정 출신에 대한 우리 당의 태도가 바로 이러한데 고민을 할 필요가 없지 않는가? 청년들이 발전 문제에 대하여 말할 때 흔히 관심하는 것은 진학과 간부로 등용되는 문제인데 이것 역시 전'적으로 본인의 노력과 준비 여하에 달려 있는 문제이다. 우리 사회에서 어떤 사람이 간부로 등용되는가? 그것은 김 일성 동지가 가르치신 바와 같이 어떤 환경 하에서도 동요 없이 당과 혁명에 무한히 충실하고 또한 지식과 기술이 있고 전개력과 활동성이 강한 능력 있는 일'군이다. 로동자 출신의 간부는 과거에 일제와 자본가의 착취를 가장 혹독하게 받았기 때문에 제국주의와 착취 제도를 증오하는 사상이 강하고 혁명에서 동요하지 않으며 조직성이 강하다. 때문에 이런 일'군이 간부로 많이 등용되여야만 혁명을 옳게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은 명백한 일이다. 그러나 비근로 계급 출신의 사람이라 하여도 그가 실제 투쟁을 통하여 당과 혁명에 무한히 충실하고 능력 있는 일'군으로 단련된다면 국가는 그에게 무겁고 영예로운 책임을 맡는 간부로 등용하리라는 것은 더 말할 여지가 없는 것이다.

이전의 비근로 계급의 출신인 일부 청년들 중에는 가정 환경의 영향이 자기의 발전에 지장을 준다고 하면서 가정과 결별하거나 부모와 인연을 끊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것은 옳은 태도겠는가? 자기 가정이 계속 착취에 기초한 부패한 생활을 하고 있거나 부모가 반혁명 분자인 경우라면 이런 태도는 응당한 태도일 것이다.

그러나 오늘 우리 나라의 모든 가정은 변화하였으며 또 변화하고 있다. 경제 형태의 사회주의적 개조는 이미 끝났으며 부모들도 근로하는 사람으로 되였다. 말하자면 부모들의 성분도 변화하고 있다. 지금은 사상 개조가 남아 있을 뿐이다. 우리 당은 그들의 사상 개조를 방조하면서 계속 옳은 길로 인도하고 있다. 지금에 와서 청년들에게 미치는 가정 환경의 부정적 영향은 급속히 감소되고 있다. 청년들에게 주는 결정적 영향은 가정 환경인 것이 아니라 사회주의적으로 전변된 사회 환경이다.

이런 시기에 청년들이 자기 가정과 부모들에게 취할 태도는 그들에게 더 많은 영향과 방조를 드려 그들이 하루속히 낡은 사상과 관습의 잔재를 청산하게 하는 데 있다. 바로 이것이 자식된 사람의 응당한 도리이며 또한 그것은 공민적, 도덕적 의무일 것이다.

× ×

이제는 결론으로 넘어 가자. 독자들! 결론은 스스로 명백하지 않은가! 가정 출신은 자의로 선택할 수 없는 일이나 생활의 길, 진보의 길은 자신의 의지의 힘과 투쟁으로 개척할 수 있으니 모든 문제는 결국 자신에 달려 있는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투쟁할 것인가? 맑스—레닌주의를 깊이 학습하여 과학적 세계관으로 튼튼히 무장하며 실제 투쟁 속에 뛰여 들어 용광로 밑에서, 기대, 기계 밑에서 로동을 통하여 단련하자! 그리고 분초를 아끼여 과학과 기술을 배우고 또 배우자! 그리하여 당과 로동 계급과 공산주의 위업에 영원히 충직한 혁명 전사가 되자! 그러면 생활의 보람과, 영예, 인민의 사랑은 당신들의 가슴에 안겨질 것이다.

이것을 아십니까

전화기는 어떻게 말을 보내는가?

전화기는 송화기와 수화기로 나누어져 있다.

송화기는 우리의 말을 보내고 수화기는 대상의 말을 듣게 한다.

우리가 송화기 앞에서 말을 하면 말 소리는 공기를 진동시키면서 얇고 동그란 진동 판에 부딪치면서 이 송화기의 진동판을 말의 진동과 같이 진동시킨다. 송화기 판이 진동하면 송화기를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진동 판의 진동과 꼭 같이 진동하게 되여 있다. 이렇게 송화기에서 말의 진동과 같이 변하여진 진동하는 전류는 전화선을 따라 전화를 받는 사람의 전화기의 수화기 속에 들어 가서 말을 전하게 된다. 수화기 속에는 조그마한 전기 자석이 있고 이 자석 앞에 역시 얇고 동그란 진동판이 있다. 송화기에서 온 진동하는 전류는 수화기의 자석의 코일 속을 흐르게 된다. 자석은 전류의 진동에 따라서 앞의 진동판을 당기면서 그를 진동시킨다. 수화기의 진동판이 찾아 온 전류와 같이 진동한다는 것은 보내 온 말 소리와 같은 소리를 내면서 진동을 한다는 것을 말한다. 이리하여 수화기의 진동판은 송화기에서 보낸 말과 같은 말을 듣는 사람에게 전달하게 된다.

전화기에서 진동 판과 건전지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진동 판에 습기를 가져오면 말 음절이 정확치 못하며 건전지가 습기를 가졌을 경우에는 건전지의 필요 없는 소모를 가져 온다. 때문에 진동 판을 항상 건조하게 하며 건전지 함을 만들고 탁상 우에 올려 놓도록 하고 부득이 땅'바닥에 놓아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함 밑에 2~3cm 정도의 두께를 가진 건조한 판자를 깔도록 하여야 한다.

정치 강좌

조선 로동당 (5)

조선 로동당의 지도 사상은 맑스—레닌주의이다

조선 로동당은 맑스—레닌주의의 학설을 자기 활동의 지침으로 삼는다

백여년 전에 혁명의 위대한 수령인 맑스와 엥겔스는 과학적 연구와 로동 운동의 경험을 총화하여 혁명적 학설을 창조하였으며 이 학설은 그 후 레닌에 의하여 더한층 발전되였다. 그래서 이 혁명적 학설을 맑스—레닌주의라고 한다.

그러면 맑스—레닌주의란 무엇이며 우리 당은 왜 이 학설을 자기의 지도 사상으로 삼고 있는가? 맑스—레닌주의는 사회의 발전 법칙과 압박받고 착취 당하는 근로 대중의 해방의 길을 밝혀주는 학설이며 또한 모든 나라에서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실현하는 길을 정확히 가르쳐 주는 학설이다.

맑스—레닌주의는 인류 사회가 과거 어떻게 발전하였으며 또 장차 어떻게 발전하게 될 것이라는 법칙을 가르쳐 준다. 원시 사회에는 계급과 착취가 없었는데 그 후 생산력이 발전함에 따라 생산 수단을 가진 사람과 못가진 사람이 산생되여 착취 계급과 피착취 계급이 생겼으며 노예 사회, 봉건 사회, 자본주의 사회가 련달아 발생하였다. 이 사회는 모든 계급이 서로 대립되여 있는 사회이다. 맑스, 엥겔스, 레닌은 인류 사회의 력사와 특히 자본주의 사회를 연구하면서 로동 계급과 기타 근로 인민의 빈궁과 무권리의 원인을 발견하였으며 자본주의 사회의 병'집을 찾아 내여 자본주의 사회는 반드시 멸망하고 계급과 착취가 없는 사회 즉 사회주의—공산주의가 도래한다는 것을 밝혔다.

그러나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는 저절로 실현되는 것이 아니다. 맑스—레닌주의는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실현하는 길을 가르쳐 주었다. 즉 그것은 로동 계급이 자기의 정당—공산당을 조직하여 모든 근로 대중을 령도하여 자본가 계급과 투쟁할 것이며 투쟁 방법은 다종 다양할 수 있으나 정권을 쟁취하고 생산 수단에 대한 사적 소유제를 폐지한 다음에야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건설에 착수할 수 있다고 가르쳤다.

맑스—레닌주의의 발생은 어두운 밤에 길을 밝혀 주는 등'불과도 같이 전 세계 근로 대중에게 자기 해방을 위한 혁명 투쟁의 방향과 방법을 밝혀 주었으며 동시에 그들의 투쟁을 고무하였으며 또 고무하여 주고 있다. 때문에 공산주의 사회 건설을 자기의 최고 목표로 삼고 있는 전 세계의 로동 계급의 정당—공산당 및 로동당들과 함께 조선 로동당은 맑스—레닌주의의 리론을 자기 활동의 지도적 지침으로 삼고 있는 것이다.

조선 로동당이 창건 이래 우리 인민을 령도하여 매 계단의 혁명 투쟁에서 위대한 승리를 달성한 것은 당이 맑스—레닌주의란 이 혁명적이며 과학적인 사상적 무기를 튼튼히 틀어 쥐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 나라 혁명에서의 모든 승리는 맑스—레닌주의의 승리이다.

조선 로동당은 맑스—레닌주의를 창조적으로 적용 발전시키고 있다

맑스—레닌주의는 백전 백승의 과학이며 어느 나라에나 적용되는 보편적 진리이다. 그러나 이 리론은 모든 나라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일반적 원칙만 밝혔을 뿐이지 개별적 나라에서 어떤 방법으로 혁명을 수행하며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건설하는 가는 구체적으로 밝혀 줄 수 없다.

때문에 맑스—레닌주의는 개별적 나라의 구체적 실정에 창조적으로 적용되여야 하며 또 그래야만 그 위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 나라에 맑스—레닌주의가 들어온 것은 10월 사회주의 혁명 승리 이후이다. 그러나 1920 년대에는 종파 분자들의 해독에 의하여 우리 나라에서 맑스—레닌주의가 조선 민족 해방 투쟁과 로동 운동의 확고한 지도 사상으로 되지 못하였다.

1930 년대에 들어 와서 비로소 김 일성 동지를 비롯한 견실한 공산주의자들에 의하여 맑스—레닌주의 리론이 우리 나라 혁명 발전에 창조적으로 적용되여 반일 민족 해방 운동의 확고한 전략 전술이 작성되였으며 맑스—레닌주의 당 창건 준비를 위한 리론, 사상적 기초로 되였다. 1930 년대 김 일성 동지를 선두로 하는 견실한 공산주의자들에 의하여 지도된 항일 무장 투쟁에서 이룩된 빛나는 혁명적 전통의 하나가 다름아닌 맑스—레닌주의 사상 체계이다.

이러한 빛나는 전통을 계승하고 김 일성 동지를 선두로 하는 견실한 공산주의자들을 지도적 핵심으로 하여 창건된 우리 당은 창건 첫날부터 맑스—레닌주의 리론을 지도적 사상으로 하여 그를 우리 나라 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하여 제반 정책을 수립 실시하였다.

사회주의 혁명과 건설을 진행하는데 꼭 지켜야 할 일반적인 합법칙성이 있다. 그것은 프로레타리아 독재의 확립, 생산 수단에 대한 사회화 즉 자본주의적 요소의 사회주의적 개조 그리고 인민 경제의 계획적, 균형적 발전—중공업의 우선적 장성, 농업 협동화, 문화 혁명 등이다.

우리 당은 이러한 사회주의 건설의 일반적 원칙과 쏘련 공산당의 고귀한 실천적 경험을 지침으로 하여 사회주의 건설의 매시기, 매 계단마다 제기되는 문제를 창조적으로 해결하였다. 례컨대 전후 시기에 실시한 경제 정책 즉 중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면서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적으로 발전시킨 정책이 바로 그러하며 농업, 수공업 및 자본주의적 상공업의 사회주의적 개조 정책이 역시 그러하다.

맑스—레닌주의 리론은 중공업의 우선적 장성이 없이는 인민 경제의 전반적인 발전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가르친다.

그러나 중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는 이 원칙을 적용하는 방법과 형식은 결코 동일하지 않다. 쏘련에서는 자본주의의 포위 속에서 중공업의 발전을 중심적으로, 다른 부문을 다소 희생해 가면서 발전시켰으며 또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우리 당은 중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면서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적으로 발전시키는 경제 정책을 실시하였다. 이 정책은 우리 나라 인민 경제에 남아 있는 식민지적 편파성을 제거하고 나라의 경제를 급속히 발전시킬 수 있으며 인민 생활을 안정 향상시킬 수 있는 우리 나라의 전후 시기에 조성된 정세에서 가장 적합한 방침이였다.

쏘련에서는 사회주의 건설 시기에 자본주의적 요소에 대하여 수탈, 구축, 청산의 정책을 실시하였다면 우리 나라에서는 리용, 제한, 개조 정책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중국에서는 자본주의적 상공업의 사회주의적 개조 정책에 있어

서 국가 자본주의를 거쳐 진행하였다면 우리 나라에서는 협동화의 방법으로 개조 정책을 실시하였다. 이것은 우리 나라의 구체적 실정에 가장 적합한 독창적 방법이였으며 맑스—레닌주의의 창조적 적용의 생동한 실례이다.

우리 당은 맑스—레닌주의를 창조적으로 적용하면서 맑스—레닌주의를 통채로 삼키거나 기계적으로 적용하려는 교조주의적 경향과 맑스—레닌주의의 혁명적 내용을 거세하려는 수정주의를 반대하여 추호도 타협 없는 투쟁을 전개하여 왔으며 또 전개하고 있다.

민청원들은 맑스—레닌주의를 의무적으로 학습하여야 한다.

민청은 조선 로동당의 방조자이며 후비대이다. 따라서 민청의 지도 사상은 맑스—레닌주의이다. 민청의 기본 임무는 당 정책 실현을 위한 투쟁에로 청년들을 적극 동원하며 청년들을 맑스—레닌주의 사상으로 교양함에 있어서 당을 방조하는 데 있다. 동시에 민청은 자기 대렬에서 우수한 근로 청년들을 교양 육성하여 당 대렬을 부단히 보충하는 후비대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매개 민청원들은 당의 방조자이며 후비대의 역할을 원만히 수행하여 훌륭한 사회주의—공산주의 건설자가 되기 위하여서는 맑스—레닌주의를 충실히 학습하여야 한다. 김 일성 동지는 《어느 부문에서 일하든 무엇을 전문으로 하든 간에 전체 청년들은 의무적으로 맑스—레닌주의를 학습하여야 하겠습니다》라고 가르치시였다.

맑스—레닌주의를 학습하기 위하여서는 맑스, 엥겔스, 레닌의 저서들을 학습하여야 하며 김 일성 동지의 로작과 우리 당의 정책을 깊이 연구하여야 한다. 김 일성 동지의 로작과 우리 당 정책들은 맑스—레닌주의를 우리 나라 혁명의 실천과 결합시킨 사상으로 관통되여 있다. 맑스—레닌주의를 학습하는 목적이 우리 나라 혁명 실천에 적용하기 위한 것인 만치 우리는 김 일성 동지의 로작과 우리 당 정책을 떠나서는 맑스—레닌주의를 참답게 학습할 수 없다.

맑스—레닌주의는 서적에서 배울 뿐만 아니라 실제 투쟁을 통하여 체득하여야 한다. 서적에서 맑스—레닌주의의 개별적 명제나 읽고 암송하였다고 하여 그가 맑스—레닌주의자로 되는 것은 아니다. 맑스—레닌주의는 로동 계급의 실제 투쟁에 기초하여 창조된 과학이며 로동 계급의 혁명 투쟁 경험을 총화한 과학이다. 그러므로 맑스—레닌주의 사상을 체득하기 위하여서는 실제 투쟁 속에 뛰여 들어야 한다. 실제 투쟁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사회주의 경제 건설을 위한 로력 투쟁이며 사회주의 혁명을 위한 정치 투쟁이다. 오직 로력 투쟁과 정치 투쟁에 직접 참가함으로써만 우리는 맑스—레닌주의를 정확히 학습할 수 있다.



그는 왜 민청 생활에서 유리 되였는가?

민청원 오 영뎍 동무는 작년 12월 사동 시장 식당 접대원으로 이동하여 온 이후 오늘까지 맹원 이동 수속을 하지 않았다. 그러니 그는 이 기간에 민청 생활에서 유리되여 초급 민청 단체 총회도, 학습회에도 참가하지 않았다.

이런 사실에 대하여 민청원 오 영뎍 동무는 자신의 결함을 전'적으로 일이 바쁘다는 구실에 돌리고 있다. 그러나 민청 조직 생활에서 장기간 유리된 실지 원인은 그가 바쁜데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민청 조직 생활에 자각적으로 참가하려는 그의 노력이 부족한 데 있다.

오 영뎍 동무의 전직장은 다른 도나 다른 시, 군이 아니라 같은 평양 시내인 중구역 대동교 상점이다. 그런데도 그는 차일피일 하다가 이곳 식당에 이동해 온지 3개월 후에야 중구역 민청에 가서 맹적 이동 수속을 하여 왔으나 제때에 초급 민청 단체에 제기하지 않고 옆 주머니 속에 그냥 넣어 두었다. 일이 바빠서 초급 민청 단체 위원장을 찾아갈 짬이 없어 오늘까지 그냥 있었다는 것이였다.

그러면 사실 그러하였는가? 그렇지는 않았다. 초급 민청 단체 위원장이 일하는 곳은 오 영뎍 동무가 일하는 식당으로부터 3백 메터 내외에 불과하다. 또한 응당 함께 일하는 민청 분조장에게 제기하여 해결 받도록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 조차 전혀 하지 않았다. 이렇게 하여도 사실 짬이 없어 그러하였는가? 문제는 민청원으로서 민청원의 규약상 의무 실행에 태공하며 민청 조직 생활에 대한 조직적 관념이 부족한 탓에 기인되는 것이다.

그의 조직 관념이 얼마나 부족한가 하는 것은 민청 맹원증을 되는 대로 보관하며 이 기간에 맹비를 납부하지 않았으며 민청 총회나, 학습회에 단 한 번



민청 회의 시간에는……

도 참가하지 않은 것으로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

민청 조직 생활에서 유리된 결과로서 그는 식당 접대원 사업에서도 적지 않은 부족점을 발로시켰는데 때때로 로동 규률을 위반하군 하였다. 출근 시간에 늦는 것은 례사이고 바쁜 판매 깜빠니야 때에는 이 구실 저 구실을 부쳐 결근하기가 일수였다. 지어는 식당을 찾아 온 손님들에게 불친절하게 대함으로써 여러 차례에 걸쳐 신소까지 받게 되였다.

민청원 오 영덕 동무가 장기간 민청 생활에서 유리된 것은 이곳 초급 민청 단체 집행 위원회에도 그 책임이 적지 않게 있다.

이곳 초급 민청 단체의 경우를 보면 급격히 상업망이 확장되는 것과 관련하여 작년 12월 중순부터 40여 명의 가정 부인 민청원들이 이동하여 왔다. 이들 중 적지 않은 동무들은 맹원 이동 수속을 해 오지 않음으로써 오래동안 민청 생활에서 유리되였다. 이들은 대부분 민청 생활 년한이 비교적 짧고 사업 경험과 조직 생활에서 단련이 극히 부족한 동무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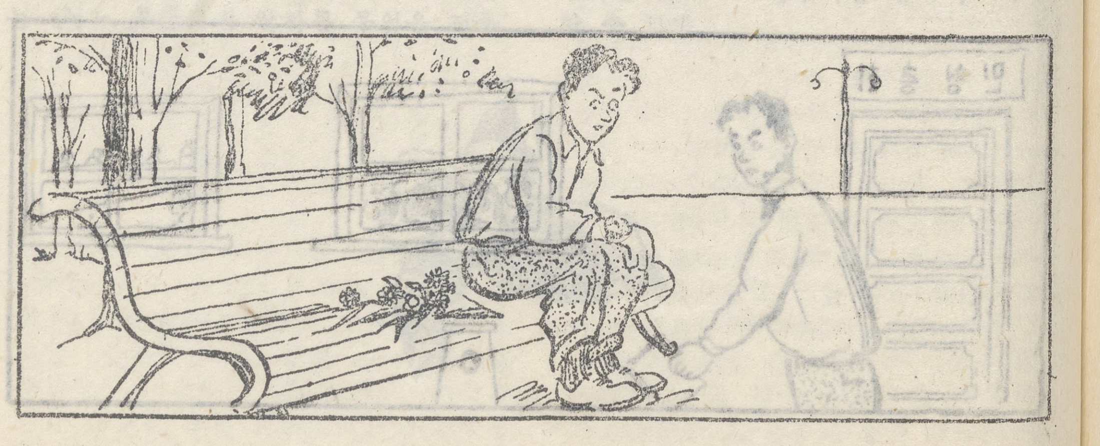
이와 같은 실정은 새로 이동해 온 민청원들을 민청 생활에 적극 참가시키며 그들로 하여금 민청 조직 생활에 자각적으로 참가하도록 지도하는 사업을 진행하여야 할 것이였다.

그러나 이곳 초급 민청 단체에서는 민청원들의 조직 생활과 사상 생활 지도에는 거의 관심을 돌리지 않고 있으며 지어는 민청 중앙 위원회 제 8차 전원 회의 결정에 근거하여 자기 사업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취하지 않았다.

이렇게 되니 초급 민청 단체 사업도 잘 될리가 없었다. 지어는 민청 총회 마저 소집하자 하여도 2~3일 전부터 분주히 돌아 다녀야 하며 그래도 참가 대상중 60% 밖에 보장 못하는 형편이였다.

이곳 초급 민청 단체들은 민청 중앙 위원회 제 8차 전원 회의 결정 집행 행정을 통하여 이러한 현상을 심오하게 분석하고 금후 민청원들 속에서 민청 규약에 지적된 민청 생활 규범에 대한 교양을 강화함으로써 민청원들의 자각성과 조직 관념을 일층 제고할 대책을 결정적으로 취해야 할 것이다.

(본사 기자)



처녀와 약속을 해놓고는…… 통신원 엄 병화 그림

민청 생활 문?답

"문" 누가 민청원이 될 수 있는가?

"답" 민청 규약에 지적되여 있는 바와 같이 조국과 인민의 리익을 위하여 투쟁하는 만 14 세부터 28 세까지의 조선 청년으로서 다음과 같은 조건이 구비된 청년이라면 누구나 다 민청원이 될 수 있다.

첫째로, 민청원이 되려면 조선 민주 청년 동맹의 강령과 규약을 승인하고 그의 실현을 위하여 투쟁하여야 한다.

강령과 규약을 승인하고 그의 실현을 위하여 투쟁한다는 것은 민청의 강령과 규약에 규정된 투쟁 목표를 자기의 투쟁 목표로 삼으며 또한 규약에 규정된 여러 가지 규범을 자기의 생활과 활동의 규칙으로 삼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로, 민청의 일정한 조직에서 생활하여야 한다.

이것은 민청원이 되려면 민청의 어느 한 조직에 참가하여 조직 생활을 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어느 한 조직(초급 민청 단체)에도 속하지 않는 민청원이란 있을 수 없다. 조직 생활을 한다는 것은 곧 초급 민청 단체의 모든 사업에 정상적으로 참가하며 상급 민청 단체들과 초급 민청 단체의 결정과 지시들을 충실하게 실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세째로, 민청원이 되려면 규정된 맹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그런데 맹비를 납부하는 것은 민청을 물질적으로 원조하는 데만 그 의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맹비의 납부를 통하여 민청원의 조직 관념과 규률성을 기르며 민청 단체와의 일상적 련계를 맺게 하는 데도 중요한 의의가 있다.

"문" 민청에 가맹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가?

"답" 민청 가맹은 다음과 같은 개별적 절차에 의하여 한다.

첫째로, 민청에 가맹하기를 원하는 청년은 민청원 2 명의 보증을 얻은 후 가맹 원서를 초급 민청 단체에 제출한다. 소년단원이 민청 가맹을 지원하였을 때에는 소년단 대 위원회의 결정으로써 보증을 줄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 소년단 대 위원회의 보증은 민청원 1 명의 보증을 대신한다. 그러므로 1 명의 민청원 보증을 더 받아서 초급 민청 단체에 가맹 원서와 함께 제출한다.

가맹을 보증하는 민청원은 가맹을 지원하는 청년의 생활을 잘 알며 또 그의 가맹 준비를 잘 도와주며 가맹한 이후에도 그의 생활을 잘 지도하여야 한다.

둘째로, 초급 민청 단체들에서는 가맹 청원이 제기되면 지체 없이 초급 민청 단체 총회에서 가맹 청원자의 참가하에 토의하여 가맹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초급 민청 단체 총회에서 가맹이

결정되면 가맹 원서의 기록 사항을 빠짐 없이 기입하여 지체 없이 시 (구역), 군 민청 위원회에 제출한다.

세째로, 초급 민청 단체 총회에서 토의 결정된 가맹 청원은 시 (구역), 군 민청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된다. 가맹을 청원한 자는 자기 문제를 토의하는 시 (구역), 군 민청 집행 위원회에 참가하여 가맹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을 받아야 한다.

"문"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의 강습소 또는 양성소에 가는 민청원의 이동 수속은 어떻게 하는가?

"답" 첫째로, 림시 이동되는 민청원은 소속되여 있는 초급 민청 단체에서 림시 이동 내용을 기입한 등록 사항 변동 보고서를 받고 해당 시(구역), 군 민청 위원회에 제출하며 동시에 림시 이동 통지서를 받는다.

둘째로, 림시 이동되는 민청원은 목적지에 도착한 후 5일 이내에 해당 시 (구역), 군 민청 위원회에 림시 이동 통지서를 제출하고 해당 민청 단체에 소속하여 민청 생활에 참가한다.

세째로, 자기 직장 혹은 고향에 돌아 올 때에도 역시 그곳 시 (구역), 군 민청 위원회로부터 다시 림시 이동 통지서를 받고 도착한 해당 시 (구역), 군 민청 위원회에 림시 통지서를 제출한 후 민청 생활에 참가하게 된다.

초급 민청 단체에서는 시 (구역), 군 민청 위원회로부터 그 민청원을 소속시키라는 통지를 받으면 그를 정식 민청 생활에 참가시킨다.

이것을 아십니까

전기 휴즈 안전기는 무슨 역할을 하는가?

전기 휴즈에는 실형으로 된 휴즈와 관형으로 된 휴즈, 포장 휴즈 등이 있다.

가정에서 사용하는 것은 실형으로 된 휴즈이며 그 외는 공장들에서 주로 사용한다.

휴즈는 가느다란 연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연은 전기가 제일 잘 통하며 융해 온도가 제일 낮기 때문에 휴즈로서는 가장 적합하다. 때문에 휴즈는 자기 능력 이상의 전류가 흐르는 위급한 시기에는 자기 몸을 먼저 끊고 희생되면서 사고를 방지하게 되는 것이다. 만약 가정에서 배전부의 승인 없이 전기 곤로나 전기 다리미 또는 필요 이상의 전등을 가설하면 휴즈는 끊어진다. 그런데 가끔 어떤 사람들은 필요 이상의 전기를 쓰기 위하여서나 가끔 끊어지는 것이 귀찮다고 굵은 쇠줄을 이어 놓고 전기의 정전 사고에 대한 좋은 대책을 세워 놓은 듯이 좋아하는데 이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다. 전기 안전을 위하여 휴즈는 꼭 연 도선을 넣어야 한다. 이와 같은 휴즈 안전기는 사고를 방지하는 초병으로서 복무하고 있다.

한편 전기 사고시에는 인차 전기 배전소와의 련락을 취하여 해당 기술자들의 방조를 얻어야 한다. 만약 전기를 다룰 때에는 손과 발을 물에 젖게 하지 말아야 하며 고무, 사기, 마른 나무 등 수분이 없는 물체를 디디고 작업하여야 한다.

〈조선 예술 영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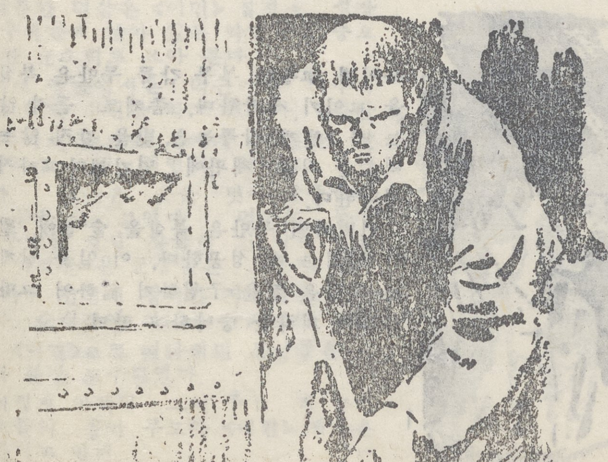
←김 덕삼은 지난 조국 해방 전쟁 시기에 패주하는 원쑤들의 총칼에 못이겨 남으로 끌려 갔다. 그는 성년한 딸 복실을 데리고 해방 전부터 남조선에 와서 사는 동생 덕근을 찾아 정처 없이 떠돌아 다녔다. 그러나 동생의 소식은 도저히 알 길이 없었고 정처 없는 류랑 끝에 남조선의 어떤 부두에 머물게 되였다.



부두에서는 이른 새벽부터 헐벗고 굶주린 로동자들이 하루의 일'거리를 얻으려고 부두의 철문 앞으로 밀려 들어 가고 있었다. 이들은 저마다 행여나 패쪽을 얻을 수 있을가 하여 아우성을 치면서 덤벼 들었다.

그 속에는 김 덕삼도 끼여 있었다. 패쪽을 나누어 주는 감독놈이 마지막 번호를 부르자 마자 철문은 무지스럽게 닫히고 말았다. 이 바람에 덕삼은 그만 문틈에 끼우게 되였다.

이때 마침 옆에 있던 젊은 부두 로동자인 박 상호가 덕삼을 이 위기에서 구원해 준다. 이리하여 이들은 서로 아는 처지가 되였다. →



←자기 처를 시켜 로동자 숙소를 경영하고 있던 부두 감독 리 두만은 복실의 얼굴이 그리 밉지 않은 것을 탐내여 이들 부녀를 자기 집에서 류숙케 한다. 그리고 덕삼을 섬유 공장 보이라'간 화부로까지 취직시켜 주는 《선심》을 쓴다. 그러나 이 섬유 공장은 미국 원면 가격의 등귀와 미국 상인들의 흉계로 하여 얼마 가지 못해서 파산당하고 만다. 수백명의 로동자들은 임금도 못받고 실업자가 되여 거리로 쫓겨나고 만다. 이통에 덕삼이도 실직을 당한다. 덕삼은 아무리 버둥거려 봤대야 헤여 나갈 수 없는 구렁 속에서 헤매이게 되자 고향을 등지고 공화국의 품을 떠난 자기의 과오를 후회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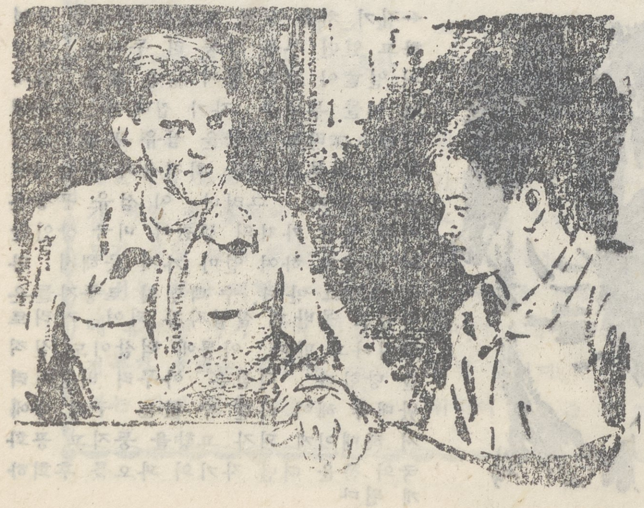
←한편 상호와 복실은 천대 받는 사람들의 한 많은 심정으로 하여 서로 믿고 의지하는 사이가 되였다. 이들은 달 밝은 바다'가를 거닐면서 앞날의 꿈을 속삭이군 하였다.

덕삼은 이들의 행복을 위한 일이라면 무엇이든 사양치 않고 나설 심정이였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부두 감독 두만의 꾀임에 빠져 부두 로동자들의 파업을 파괴하는 로동자로까지 고용되였다가 파업 로동자들에게 매까지 맞게 된다.

막다른 골목에 다달은 실업자들은 일'자리를 요구하는 시위를 단행하면서 투쟁한다. 이 기회를 타서 미국 노예 상인들과 리 승만 도당들은 남조선 인민들을 외국 자본가의 종신 노예로 팔아 먹으려는 악랄한 《이민》 책동 음모를 꾸민다.

《이민》 선전을 듣게 되자 덕삼은 단연 이를 거절한다. 그는 고향을 떠난 것만 해도 원통한 노릇인데 제나라 마저 버리고 이국 만리로는 도저히 떠날 수 없다는 것을 생각한 것이다. →





←이때 교활한 부두 감독 두만은 복실을 꼬이기 시작한다. 좀체로 듣지 않는 복실에게 감독놈은 빚을 갚지 않는 덕삼을 죄결 재판에 넘기겠다고까지 협박한다.

이러하여 두만은 복실을 술'집에 팔아 넘기는 데 성공한다. 이 일을 알게 된 덕삼은 딸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만 《이민》 계약을 승낙하고 만다.

덕삼은 북두칠성이 반짝이는 그리운 고향을 등지고 언제 또다시 돌아 올른지도 모를 길을 떠나가야만 되였다. 이때 그는 우연히도 남미에서 《이민》 선전을 위하여 돌아 왔다는 동생 덕근을 만나게 된다.

덕삼은 이때야 비로소 동생에게서 자기가 팔려가는 남미 땅이 얼마나 무서운 생지옥인가를 알게 된다. 그는 한동안 갈피를 못잡고 고민하게 된다. 그러나 덕삼은 딸의 행복을 위해서 모든 것을 참고 복실을 상호에게 부탁하고 떠날 것을 결심한다. →





←드디여 떠나는 날이 왔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아침에 오겠다던 상호가 종시 나타나지 않는다. 덕삼은 기다리다 못해서 복실에게 상호를 찾으러 떠나가게 한 후 집결소 마당으로 간다. 한참만에야 사색이 되여 돌아 온 복실은 덕삼에게 모든 것이 거짓이였다고 말한다.

떠나는 날엔 복실의 빚이 해소된다는 두만의 약속과는 달리 계약 문서는 여전히 술'집 주인의 손에 들어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상호마저 부두 파업의 핵심으로 활동하다가 그만 놈들에게 붙잡히여 강제 《이민》을 당하게 된다는 것이였다.

격분한 덕삼은 《이민》 집결소 식장의 주석단에 앉아 있는 악당들을 증오에 찬 눈초리로 쏘아 본다.

이때 연단에서는 덕근이가 터무니 없는 허위 선전을 하고 있었다. 덕삼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진실을 말하라》 고 소리 치면서 앞으로 뛰여 갔다. 덕근은 옷을 벗어 군중들에게 등을 내 보인다. 덕근의 등에는 무수한 채찍 자국이 인 박혀 있었다. 이것을 본 군중들은 모두가 놀래며 허위 선전에 넘어간 자신들을 뉘우친다. 순식간에 장내는 수라장이 되였다. 《이민》으로 떠나려던 사람들은 모두가 분산 도주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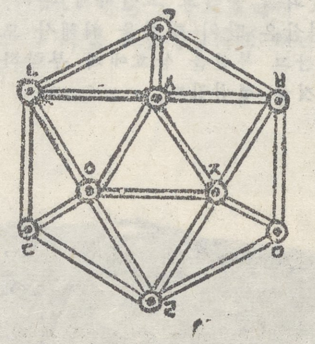
이렇게 미제와 그의 주구 리 승만 역도들의 흉악 무도한 《이민》 책동은 파탄되고 만다. →

조 동제 그림





《도시 구경》



그림에 표시된 ◎ 지점은 도시이고 쌍선을 그은 것은 도로망이다. ㄱ시로부터 자동차를 타고 이 도로망을 죄다 한 바퀴 돌면서 각 도시를 구경하고 ㄱ시로 돌아 오는데 될수록 같은 길을 반복하여 통과하지 않고 최단 코스를 택하여야만 된다. 어떻게 하면 가장 가까운 코스로 모든 도시를 구경할 수 있겠는가? (단 반복 통과는 두 개의 도로에 한한다.)

(현 상 문 제)

이것은 어느 작품의 한 구절입니까?

……………………

동포들이여!
《저 불을 보느냐?
조선은 죽지 않았다!
조선의 정신은 살았다!
조선의 심장도 살았다!
불을 지르라!
원수의 머리에 불을 지르라!》
만세 소리 집도 거리도 떨치고
화염을 따라 오르고 올라
이 나라의 침침한 야공을
뒤흔든다 뒤흔든다!

……………………

……………………

이런 것을 더듬어 상만은 빙그레 웃었다. 그 때 조직에서 주는 과업이라면 어떤 것이든 기어이 해냈고 그런 일 속에서 재미와 기쁨을 보았다. 이렇게 조직에서 훈련되면서 큰 신임의 표식으로 압록강을 건너 중요한 레포를 다녔던 것이다.

상만은 자기가 수행한 임무가 그리 대수롭지는 않았으나 그것이 혁명이라는 발동기를 조립하는 하나의 나사못 역할로 되였으려니 생각하니 마음은 기뻤다.

……………………

일어 나자 동포야

2. 우리는 한 민족 떨어져 살 수 없다.
일어 나자 동포야 신음하는 형제야
자유와 행복의 새 생활을 위하여
양키는 돌아가라 소리 높여 나가자
(후렴)

3. 애국의 더운 피 가슴에 타오른다.
일어 나자 동포야 사랑하는 형제야
우리의 뭉친 힘 막아 설자 누구냐
통일 독립 기치 높이 발맞추어 나가자
(후렴)

행진조로(박력있게) **일어나자 동포야** 전동우 시 / 모영일 곡

